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2020년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서면심의 통해 채택·선언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도내 노사민정 기관단체와 손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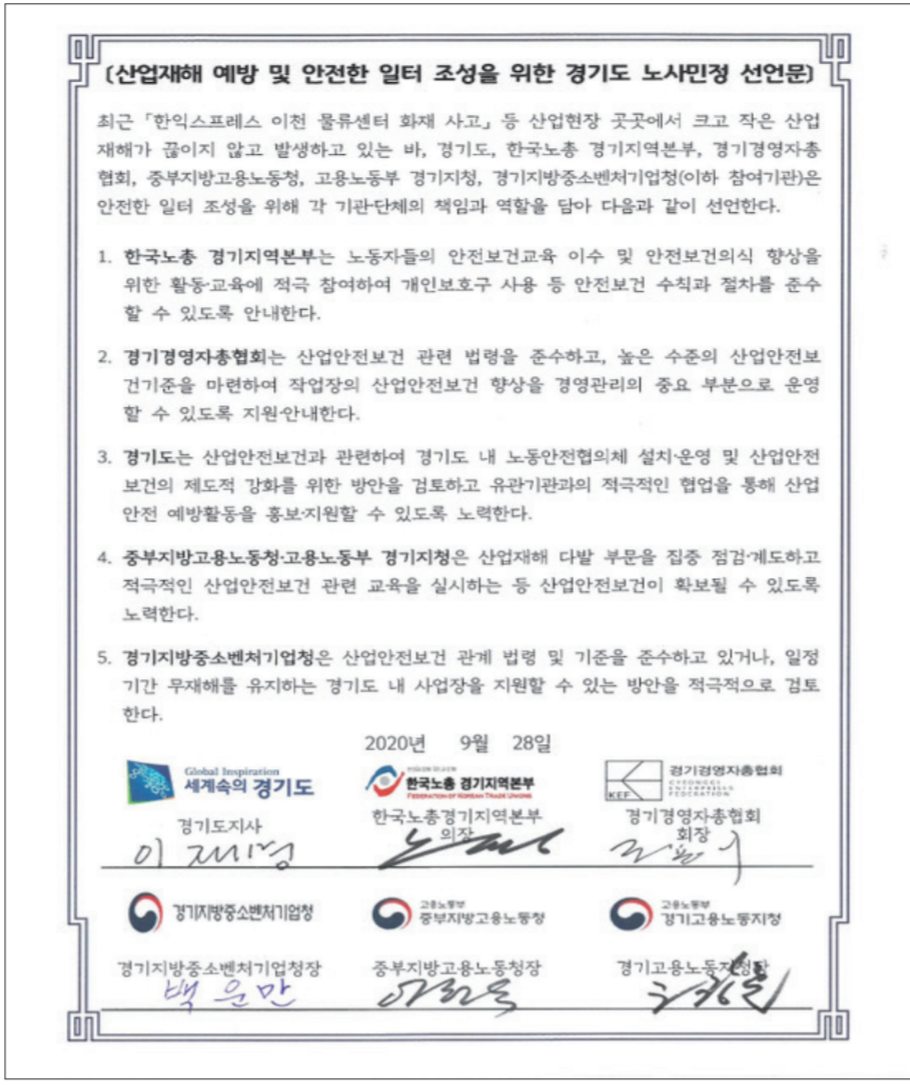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2020년 노사민정협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경기도 노사민정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언문은 이전 물류센터 화재, 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끊임없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와 사용자 모두 공감한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선언문 채택에 따라 경기도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도내 노동안전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방안과 산업안전보건에 제도적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각종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홍보·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교육 이수율과 안전보건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한 활동·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사업체 및 노동자들이 개인 보호구 사용 등 안전보건 수칙과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약속했다.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높은 수준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해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향상을 경영관리의 중요 부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안내하기로 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업재해 다발 부분을 집중 점검·계도하고 관련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끝으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고 있거나 일정기간 무재해를 유지하는 도내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장은 "이제는 함께 선언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민정이 서로 협력해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협력과 상생의 지역 노사관계를 구현하고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0년 설치·운영 중인 민관 협의체다. 도는 '도내 산업현장 재해사건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공공건설공사 시민감시단 운영, 물류센터 이동노동자 쉼터 제공, 산업재해 예방교육,



에비노동자 산업안전교육,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 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 중이다. 박상찬기자

경찰, 낮에 조사받는 피해자에게는 여비 지급 안 해

밤낮 가리지 말고 출석·조사받는 모든 피해자에게 여비 지급 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야간에 조사받는 강력범죄 및 여성 피해자 8,287명에게 여비 총 1억 9천 8백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여비는 1인당 24,000원 지급하고 있으며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나 간이진술서를 작성한 뒤 귀가할 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낮에 조사받는 피해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피해자 여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1항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사건과 관련해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해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 훈령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5

조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중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피해자를 야간에 조사하는 등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출석 및 귀가 시 이용되는 교통비 등 실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야간에 출석한 피해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피해 정도나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있지만, 경찰청 훈령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와 야간 조사 참여 피해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참고인 여비 기본 단가는 26,000원인데 반해 피해자 여비 기본 단가는 24,000원으로 피해자 지원 기준이 참고인에 비해서도 낮다.

박완주 의원은 "경찰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야간소사를 진행하지 않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조사 등의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피해자 모두에게 여비를 지급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광수기자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미세플라스틱 섭취량은 1,312개, 하루 3.6개씩 먹는다

수입산 수산물 66개 시료에서의 검출 빈도는 95.5%

우리나라 성인 1인당 미세플라스틱을 하루 3.6개, 연간 1,312개를 섭취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국내산 수산물 9종, 27개 품목, 총 81개 시료에서 미세플라스틱의 검출 빈도는 98.7%였으며 수입산 수산물 11종, 22개 품목, 총 66개 시료에서의 검출 빈도는 95.5%로 나타났다. 국내산 천일염 5개 품목 총 15개 시료에서는 100%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인체노출량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산 수산물 9종 27개 품목을 총 81개 시료로 검사한 결과, 백합 1개 시료에서 미검출된 것을 제외하고 80개 시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검출된 종별/식품별 평균농도는 패류가 "미검출~2.02MP·g⁻¹", 두족류는 "0.01~0.12MP·g⁻¹", 갑각류는 "0.02~0.18MP·g⁻¹", 어류는 "0.3~0.9MP·g⁻¹" 범위를 나타냈다. 그리고 수입산 수산물 11종 22개 품목, 총 66개 시료에서는 중국산 주꾸미 2개 시료와 중국산 낙지 1개 시료에서 미검출된 것을 제외하고 63개 시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검출된 종별/식품별 평균농도는 패류가 "0.09~3.51MP·g⁻¹", 두족류 "미검출~0.06MP·g⁻¹", 갑각류 "0.01~0.95MP·g⁻¹", 어류가 "0.70~3.85MP·g⁻¹"의 범위를 보였다.

국내산 천일염 5개 품목에서는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수산물 체내

잔류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인체노출량 조사'를 실시했다.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국내의 대표 대도시 수산물시장인 서울 노랑진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광주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각 3곳 이상의 도소매업체에서 해당 시료를 구입해 조사항료를 구성했다.

또한 수입산 수산물의 경우에는 각 수산물시장에서 원산지명 표시되지 않은 가능성이 있어, 해당 수입검역기관의 협조를 통해 시장으로 유통 전에 원산지가 명확한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그리고 천일염의 경우 국내 생산 천일염 주요 브랜드 5개를 선정해 조사했다.

또한, 국내 유통 수산물섭취를 통한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량을 평가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시된 각 종별 섭취량 값을 사용해 우리나라 성인 1인당 미세플라스틱 섭취량을 추정해본 결과, 성인 1인당 연간섭취량은 1,312개로 추정됐으며 분류군별로 패류, 갑각류, 어류, 천일염, 두족류 순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외에서 식품 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FAO는 2019년 보고서에서 식품 내 미세플라스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춘숙 의원은 "연구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플라스틱 배출량이 줄어든 노력과 더불어,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감시·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근기자

광명시, 2억 9361만원 주민세 주민에게. 주민자치시대 문을 열다

2억 9361만원 주민세로 주민 주도 마을사업 24건 추진

광명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한걸음 다가갔다.

광명시는 올해를 '주민자치의 해'로 정하고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주민들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올해 처음 광명자치대학을 운영하고 마을 발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세 환원 마을 사업을 시작했다. 또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있다.

2억 9361만원 주민세로 주민 주도 마을 사업 24건 본격 추진

광명시 2억 9361만원의 주민세가 주민에게 돌아갔다.

광명시는 주민세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 사용하는 '주민세 환원 마을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주민세 환원 마을 사업은 생활 불편 해소, 마을 발전, 환경 사업 등 주민이 마을 문제를 제기하고 직접 해결하는 사업으로 동별 3회 이상 주민 토론회를 거쳐 동별 1개 또는 2개씩 총 24개의 마을사업을 선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명2동 광이마

을 역사이야기 만들기, 광명3동 금연거리 만들기, 광명5동 장독대 사업, 철산2동 현충공원 테마포토존 설치사업, 철산3동 꽃을 품은 우리 동네 조성, 하안4동 상자뿔밭 가꾸기 등이 있으며 각 동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안4동 행정복지센터는 하안4동 행복마을 텃밭 가꾸기 사업 시작을 알리는 개장식을 지난 9월 27일 주민들과 함께 가졌다.

개장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참석해 주민세 환원 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텃밭 가꾸기에 함께 했다. 10월 15개 동 주민자치회 발대식 갖고 주민자치회 본격 추진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광명5동과 광명7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전환한 데 이어 올해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닌 주민 대표조직으로 지역 현안과 의제를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결정하고 실행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공모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했다. 모집 결과 657명이 신청했으며 각 동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5개 동 503명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10월 이후 주민자치회 출범식 및 발대식을 갖고 주민자치회 활동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명시는 주민총회,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마을공동체 센터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자치회 전환 준비-주민과 소통, 학습을 통한 자치력 강화광명시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지난 6월 15개동 '시장님과 함께 시정 최우선에 주민을 두고 모든 분야에 주민의 참여와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처음 시도한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마을 곳곳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살아 숨 쉬는 주민주권이 살아있는 자치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마스터플러스 병원 집단감염 대책 밝혀 안병용 의정부시장 10월 12일 기자회견담회 통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0월 1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담회를 개최해 관내 마스터플러스 재활병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혔다. 호원동 소재 마스터플러스 병원은 지난 5월 개원 이후 205명상 규모로 189명이 입원 중이었으며 10월 6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4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즉시 국가 지정 전문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관련 전문가 집단 및 역학조사관들로 구성된 TF팀이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확진자들의 동선에는 병원 특성상 관련된 동선이 병원 내로 한정되어 있으며 병원 관계자와 확진자는 가족 1명으로 N차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현재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부시와 호원2동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서 병원은 물론이고 주변지역까지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실시간으로 발송되는 긴급 재

난 문자를 참고하시어 개인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며 "현재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며 시장인 저를 비롯한 의정부시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이번 집단 감염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10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다고도 불구하고 도서관, 의정부예술의전당,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10월 17일까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근기자



정병기 충남도의회 행정위원장,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정병기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이 13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0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광역 지방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자치분권 향상을 위해 모범이 되는 성과를 보여준 자를 매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적수장예인 최초로 광역의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은 정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춘 활

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과 기업활동 촉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정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까지 고려한 복지 증진 기반 마련에 주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정책 발굴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원호기자

이철우 도지사, 코로나 백신 글로벌 생산기지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글로벌 제약사들 코로나 백신 대항생산 물러들고 자체 백신도 임상 앞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생산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12일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을 방문했다. 이 도지사가 백신 공장을 직접 찾은 것은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 다퉈서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에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도 조만간 임상시험에 돌입할 것과 연구개발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한 임상진입과 백신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SK바이오

사이언스 안동공장·생산품목 : 인플루엔자 백신, 대상포진 백신, 수두 백신·규모 : 부지 62,626㎡, 공장 30,401㎡, 설립 2013. 2월, 가동 2015. 2월·기타 : 초기투자 약 1,201억원, 연간매출액 1,800억원, 종업원 : 210명에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7월에는 코로나 백신 개발에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진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후보물질 AZD-1222의 위탁생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으며 8월에는 미국 노바백스와 NVX-CoV2373의 글로벌 공급을 위한 위탁생산 협약을 체결해 백신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검증 받은 바 있다. 또한, '빌엔델타게이츠재단'의 개발비용 지원을 받아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후보물질은 동물시험 등 비임상시험을 마치고 곧 임상시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약 개발 과정중처 : 식약처 홈페이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백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경북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경북바이오산단에 백신 임상시험 대항생산을 위해 조성중인 '동물세포실험지원센터'는 내년도 국비 27억원을 앞당겨 확보해 장비를 발주했으며 지난 6월 건축 설계에 착수한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는 2022년 6월까지 공사 GMP 승인을 마치고 기술지원에 들어가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백신공장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생겼고 경제에 버팀목이 되는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는 백신산업을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만큼 코로나백신 개발과 생산설비 구축 등 기업 활동지원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형/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이용범 의원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법정 도시철도 운임 면제제도'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해당 손실금의 전액 보전을 건의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도시철도는 1999년 이래로 개통 20년을 지나오며 연간 1억 6천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구조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로 적자는 늘고 있으며 그 보전을 위한 인천시 재정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무임승차손실 재정 부

담이 크게 줄어들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도시철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이용범 의원은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를 위해 10월 6일을 시작으로 국회 1인 시위에 나섰다. 관계기관 및 동료의원들과 함께 다각적으로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용범 의원은 "현재 인천광역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생산활동 위축 및 도시철도 수송인원 급감 등의 원인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했다"며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임승차손실 재정 부담까지 방치한다면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채택 시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중남/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공정성 중립성 잃은 중앙선관위 질타

해당 경찰치안감 선거관계법상 입 후보 자격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셋째 날인 지난 12일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질의가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의 화두는 경찰치안감의 신분으로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 자격을 가진 것에 대한 적법 여부였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황서중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의 면직 시점과 정당가입 가능 여부를 물었고 황 처장은 공무원의 면직은 사직 수리가 돼야 가능하고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황 처장은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한 경찰청이 사직원을 수리해 면직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는 계속됐다. 무소속이 아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당 가입과 정당 공천을 통해 선출된 것은 법 위반이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53조는 소속 기관이 '부당한 이유'로 공무원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아 공무원이 입후보 자격을 얻지 못 하는 경우를 막고자 하기 위함이다. 해당 치안감의 사직수리가 안 된 것은 부당한 이유가 아니라 울산 시장 선

거개입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정당한 이유로 사직 수리가 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에도 53조를 근거로 입후보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경찰청이 치안감의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한 5월 29일까지는 공무원 신분이었음에도 정당가입과 공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선관위는 치안감의 입후보 가능여부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어 선관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결해야함에도 당시 선거해석과장 전결로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설립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대목이다. 중앙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행태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김 의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의에 김 총장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전임 사무총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에 영향을 줬다고 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형동 의원은 "어느 기관보다 공정해야할 선관위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잣대로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뒤바꾸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임 총장 부임과 함께 위원장이 내정된만큼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총체적인 사무 관리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배달특급 홍보 나선다

약 150명 참여하는 청년봉사자 서포터즈 통해 배달특급 홍보 나서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손을 잡고 경기도 공공배달업 '배달특급' 성공을 위해 함께 달린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8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배달특급' 청년봉사자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맺고 '배달특급' 홍보 활성화에 두 기관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배달특급' 홍보를 위한 청년봉사자 서포터즈를 모집, 오는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약 150명이 참여할 청년봉사자 서포터즈는 활동 관련 교육을 받은 뒤, 온라인 상에서 '배달특급'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배달특급 앱 다운로드 안내 및 사용 후기 적극 공유 등의 활동을 펼쳐 시범지역 도민과 잠재

이용자들에게 '배달특급'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게 된다. '배달특급' 서포터즈 모집은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 대학생이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배달특급이 가맹점 확보 등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배달특급 성공을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도 서포터즈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적극 돕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배달특급'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개발·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오는 11월 중 오산·화성·파주 3개 시범지역에서 선보일 예정으로 현재 사전 가맹 신청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박상찬/기자



부산시, 교통문화실태조사 결과 전국 '최하위 E등급'

전국 기초지자체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이 전년 대비 10계단이나 떨어지면서 최하위 E등급을 기록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당 하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주민들의 교통안전의식 및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의 조사에서 부산시가 17개 시·도별 가운데 최하위인 E등급인 E등급, 16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 평균 점수는 77.46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해 최근 국내 교통문화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산시는 2018년만해도 6위를 기록했지만 1년 만에 10단계가 하락한 16위를 기록했다. 전체 세부 항목별로 보면 차량 신호 준수율,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안전띠 착용률 국민의 높은 준수율의 지표를 보여줬으나,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용빈도, 규정 속도위반 빈도, 보행자의 무단횡단 빈도는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개선이 절실한 것

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전자 10명 중 4명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조사됐다. 인명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에 따라 음주운전 빈도는 전년대비 대폭 낮아진 4.62%로 조사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하영 의원은 "최근 5년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식이 개선됐다"고 말하며 "다만 운전·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빈도가 매우 높아 교통사고 우려가 크므로 운전·보행 중에는 전방 주시와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 및 보행수칙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 의원은 "현행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과태료 대상으로 후주의 경우 휴대폰 사용 적발 카메라 개발 및 설치로 적발시 약 28만원 벌금으로 처벌 강화했다며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광남/대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임영식 / 부회장 박상찬 / 사장 박유석 / 편집국장: 최재은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트 701호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naver.com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경기.가50079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계 부: 내선 (114) 오 퍼 니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 집 국 : 02)2612-2959 구독신청, 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팩 스 : 02)2060-4147

감동양주
신성장·새지평

함께하는 감동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양주시

'밥맛이 거창한다' 전국 최고 쌀 브랜드 넘본다

거창군 쌀 브랜드, 2020년 경남 최고 품질 브랜드 평가 '대상' 영예를 듬뿍 수상도 거창한 쌀, 농민·단체·행정이 똘똘 뭉친 노력의 결과로 경남 우수 브랜드 쌀 평가에서 5회 최고 평가거창군은 거창군의 대표 쌀 브랜드인 '밥맛이 거창한다'가 2020년 경남 우수 브랜드 쌀 평가에서 최고 득점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3일 밝혔다.

경상남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도내 시군의 추천을 받은 13개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2020년 최고 품질의 브랜드 쌀 5개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품위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혼입률은 농업기술원, 식미는 한국식품연구원, 서류는 경남도에서 평가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5개 브랜드는 양면도 경남 쌀 소비촉진 행사 시 우수 브랜드 쌀로 홍보되고 추후 양정시설 및 포장재 지원 등의 경남도 자체 보조사업 우선지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밥맛이 거창한다' 브랜드 탄생과 성장기 2005년부터 고품질 브랜드 쌀을 중점 육성하고 거창 쌀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밥맛이 거창한다'라는 브랜드가 탄생했다. 이 브랜드는 '밥맛이 일품이다'라는 의미를 거창의 지역명과 '거창하다'라는 뜻을 살려 명명됐다. 제품 디자인의 노란색 바탕은 풍성하게 익어가는 벼를 표현했으며 거창이라는 단어에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의 자연을 상징하는 색들이 균형을 이루며 가득성 높은 디자인이 완성됐다.

거창군은 거창군농협연합회 브랜드였던 '밥맛이 거창한다'를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고 관내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판매자와 공급자 간의 협의를 거쳐 2012년 군내 대형마트 공급 가격을 통일했고 2014년 현재의 대표 쌀 브랜드로 거듭나면서 점차 성장했다. 이름만큼 수상실적도 거창한 쌀거창 쌀 대표 브랜드 '밥맛이 거창한다'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맑은 물을 먹고 자란 덕분에 수년간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는 탁월한 성과를 올렸다.

경남 우수 브랜드 쌀 평가에서 6회 중 5회를 최고 등급인 최우수와 대상을 차지했으며 2013~2015년 3년 연속 농식품부 '지역을 빛낸 쌀'에 선정됐다. 그 밖에도 농협중앙회

에서 실시하는 2015년 NHQ 농협인증 쌀 브랜드 선정에 이어 2016년에는 '대한민국 명품 쌀 선정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이름만큼이나 수상실적도 거창했다. 공공분야 평가 외에도 150개 쌀을 대상으로 농협식 품연구원과 소비자, 전문 평가위원들이 1차와 2차에 걸쳐 품질, 맛, 향, 윤기 등을 심사해 결정하는 전국 농협 쌀 브랜드 평가에서 2019년 우수상을 수상해 그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그간 중부지방에서 생산된 쌀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오던 경남 쌀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도별 평가현황 2018년 브랜드 평가 미실시 쌀 산업 육성에 헌신한 농민·단체 그리고 행정이 똘똘 뭉친 노력의 결과로 경남 브랜드 쌀 평가에서 연속 우수 브랜드 선정부터 2020년 대상까지, 수상의 영광에는 그간 쌀 산업 육성에 헌신한 220명의 쌀 전업농과 연합 RPC의 노고와 동행이 뒷받침됐다.

브랜드 쌀 평가는 평가 기간 중 시군에 유통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품위, 혼입률, 식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단순히 밥맛이 뛰어나다고 해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일품종을 저아미로스 최고품질로 생산해 체계적인 도정·건조·저장을 거쳐 연중 안정적인 유통공급까지 완벽하게 이뤄져야 하기에 농가, 농협, RPC의 체계적인 협조와 행정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기반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밥맛이 거창한다'는 쌀 전업농과의 100% 계약 재배로 생산되고 재배방법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도양관리, 재배법 표준화, 품종 통일 등을 통해 일관된 고품질 쌀로 생산하고 있다.

또한, 수확과 도정 과정도 매우 까다롭게 관리하는데, 수확 후 신선하게 보관된 제품을 출하시 매일 내외면 포위분석, 주기적인 DNA 검사 등 철저한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엄선 관리하고 있다.

추정 대체품종 개발 시급은 남은 과제 '밥맛이 거창한다'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2023년까지 브랜드 단일품종인 추청을 대체할 품종을 개발·육성하는 것이다. 추청은 일본에서 도입된 외래품종 아가베리인데 정부가 2023년까지 외래품종 생산을 중단하고 2024년까지 국내에서 재배되는 외래 벼 품종 재배면적을 1만ha 이내로 축소하기로 발표했



기 때문이다. 군은 정부 발표 직후 추청품종 대체를 위해 밭 빠르게 유망 품종 지역적응 시험재배에 돌입했고 외래품종 보급용이 생산 중단되는 2023년까지 3년이라는 짧은 준비기간 동안 '밥맛이 거창한다'의 명성에 걸맞은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대체품종은 추청처럼 밥맛이 좋은 고품질의 품종을 국내 품종에서 선발해 다각적인 시험재배를 거쳐 확대 보급해야 하고 재배 매뉴얼도 정립해야 한다.

군은 2021년부터 다양한 유망품종에 대한 군 자체 지역적응시험을 본격화하고 국립식량과학원 및 경남기술원의 공동연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체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의 생명 쌀 육성 방향한국인에게 쌀의 가치는 매우 각별하다.

쌀 소비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으나 쌀 농업은 여전히 우리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의미와 상징성은 유달리 특별하다.

2020년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은 726,180ha 정도로 전체 농경지의 1,580,614ha의 46%에 해당하고 지난해 전국 쌀 생산액은 8조 8천억원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의 18%로 논과 쌀의 공익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3조 원에 이른다.

거창군의 쌀 재배면적은 4,343ha 정도로 전국의 0.6% 수준이지만, 품질만큼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됐다.

이제 '밥맛이 거창한다'는 경남 내 최고를 넘어 1,800여 개가 넘는 전국 지자체 쌀 브랜드 중 으뜸으로 도약할 발판을 만들었다. 이에 군은 전국 최고를 위한 인프

라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노동력과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 투입, 뛰어난 품종 개발, 고품질 유통 활성화를 통한 연합 RPC 시설 현대화 등 최고 품질 브랜드 쌀 생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업인들과 다각적인 협조와 공감대 형성으로 권역별 경축순환 전환형 벼 재배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 쌀은 이미 수년간의 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명실상부의 명품쌀"이라며 "앞으로 연중 햅쌀 같은 밥맛으로 경남을 넘어 전국 최고의 쌀이 되도록 특화단지 조성은 물론 가공시설 현대화, 벼 건조 저장시설 확충 투자 등 생산, 가공, 유통에

걸친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창군 쌀 전업농 오석진 회장은 이번 대상수상 소식을 반기며 "거창군 쌀 전업농은 품질 좋은 우리 브랜드 쌀을 생산하기 위해 남다른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쌀 생산에 임하고 있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소비자로부터 신뢰 받는 밥맛을 구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연합RPC 허원길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특별별 계약재배사업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 농가와 농협, 행정이 힘을 합쳐 전국 최고의 쌀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양곡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창쌀 '밥맛이 거창한다'는 1급수의 맑은 물, 오염 없는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 재배되어 그 가치는 전국 최고를 넘어 세계적인 쌀과도 견주어 손색이 없다.

송인용기자

두 바퀴로 그리는 자전거 여행, 힐링 도시 김제를 꿈꾸다

맑은 하늘 설레는 바람
만경강-새만금-동진강의 매력 한껏 느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안전한 여행지가 각광 받고 있다. 답답한 실내 대신 사방으로 탁 트인 공간을 둘러보며 힐링할 수 있는 여행지가 뜨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과 접촉을 최소화한 언택트 액티비티로 자전거 라이딩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만경강, 새만금, 동진강 둘레길을 따라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김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라이딩 명소 소개한다. 김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전복 농업의 젖줄, 만경강을 느끼자. 김제 지역의 옛 지명 만경은 만이람이나 되는 발을 이르는 말로 그 많은 발에 흐르는 강물은 이 땅의 온갖 생물을 기르는 젖줄이요, 근원이라는 것이 이 지역에 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생각이며 이는 만경강의 정수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조성된 44km에 이르는 만경강 자전거길에는 전망대, 쉼터,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어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역사와 휴식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이자 자연이 어우러진 곳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만경강을 따라 청하면 새창이 다리를 지날 때는 일제 수탈의 역사가 스쳐 가슬 한구석이 아려오기도 한다. 우리나라 최초 시멘트 다리인 새창이 다리는 일제 강점기 김제에서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민족 수탈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환상의 새만금 자전거길을 달리다. 만경을 화포리에서 진봉면사무소로 이어지는 6.5km 새만금 광역 탐방로와 진봉면사무소에서 망해사를 지나 거전리 종점까지 10km 새만금 바람길에서 김제의 진면목을 만끽할 수 있다.

만경 들녘 메타세쿼이아 길과 가을철 100리에 이르는 코스모스 길

김현태기자



갈육초,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 대상 수상

하동 갈육초, 제2회 흡연예방 문화제
영상물 부문...보건복지부장관상 받아

하동 갈육초등학교는 5학년 학생 3명이 지난 8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2회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 영상물 부문에서 초등부 전국 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는 청소년 흡연예방에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은 창작 콘텐츠 발굴 및 확산을 위해 개최됐다.

갈육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제작한 영상작품을 출품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는 쾌거를 이

뤘다. 한 학급의 전체 학생인 세 명 모두가 참여해 스토리를 함께 짜고 촬영 기법을 익혀 틈틈이 영상을 촬영하는 등 전 과정을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담은 흡연예방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달했다. EBS 교양채널을 통해 생방송된 시상식에서 학생들은 "흡연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어른들도 함께 공감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차순 교장은 "작은 학교의 한 학급 학생들이 이렇게 이룬 놀라운 결과에 큰 박수를 보낸다."

이 기회를 통해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갖고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명호기자



영주시, '2021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홍보 UCC 영상 공모전 개최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응모 가능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는 지난 12일 '2021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홍보하고 면역력에 의해 '2021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홍보 UCC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10월 1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이나 4인 이내의 팀으로 응모가 가능하고 장르에 상관없이 순수창작 영상으로 1인당 최대 2점까지 가능하다.

영상은 자유주제로 제작된 30초~3분 내외의 영상에 '2021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개최 사실을 담고 있어야 하며 영주와 풍기의 명소, 풍기인삼, 풍기인삼엑스포 등의 소재를 사용하거나 재미있고 독특한 발상으로 엑스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작품이면 된다.

응모방법은 먼저 영상물을 본인 유튜브 계정에 게시하고 신청서를 엑스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이메일 또는 네이버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내부심사와 온라인심사를 거쳐 12월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 1팀 2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 장려상 4팀 각 50만원으로 총 7팀에 600만원의 상금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장육현 조직위원장은 "이번 '2021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홍보 UCC 영상 공모전에 재미있고 기발한 영상들이 많이 접수되기를 바라

며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들이 이번 공모전과 풍기인삼을 통해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원형기자

2021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최 홍보 UCC 영상 공모전
2020. 10. 12(화) - 11. 13(금) 33일간

대상 2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 장려상 4팀 각 50만원

응모기간 2020. 10. 12(화) ~ 11. 13(금) 33일간

응모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으로

응모방법 1. 영상물 제작 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네이버폼을 통해 제출한다. 2. 영상물 제목은 '2021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포함한다. 3. 영상물 길이는 30초 이상 3분 이하이다. 4. 영상물 형식은 MP4, MOV, AVI, WMV, FLV 등이다. 5. 영상물 해상도는 1080P 이상이다. 6. 영상물 파일 크기는 1GB 이하이다. 7. 영상물 제목은 '2021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포함한다. 8. 영상물 내용은 영주와 풍기의 명소, 풍기인삼, 풍기인삼엑스포 등을 주제로 한다. 9. 영상물 내용은 순수창작 영상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10. 영상물 내용은 영주와 풍기의 명소, 풍기인삼, 풍기인삼엑스포 등을 주제로 한다. 11. 영상물 내용은 순수창작 영상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심사위원 2020. 11. 13(금) 14:00 ~ 17:00

심사기준 1. 영상물의 주제성 2. 영상물의 창의성 3. 영상물의 표현력 4. 영상물의 기술력 5. 영상물의 완성도

심사결과 2020. 11. 13(금) 17:00 ~ 19:00

상금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응모문의 02-20-1111111

주최 영주시

주최처 영주시관광진흥과

김해시 동상시장 일원 공공미술프로젝트 추진

도시재생사업과 시너지 상권 활성화 기대

김해시는 동상시장 내 청년몰과 분성광장에 조형물과 벽화 같은 미술품을 설치하는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분위기를 전환하고 주민과 작가간 소통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해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남도에서 주최하고 김해시에서 주관한다. 사업지로 선정된 청년몰과 분성광장이 있는 동상동은 김해시가 56만 대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견인해온 원도심지로서 과거의 번성에 비해 많이 쇠퇴했으나 옛 명성을 되찾고자 도시재생사업이 한창인 곳으로 가야시대 유향과 유적이 있는 가야역사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또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이국적인 거리가 조성돼 있고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해 경남의 이태원으로도 불린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과 공공미술사업이 서로 연계해 완료되면 관광객 유치와 상권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공공미술프로젝트를 맡은 김해청년예술인연합회는 지난 8월 공개모집을 통해 9월 최종 선정된 작

송인용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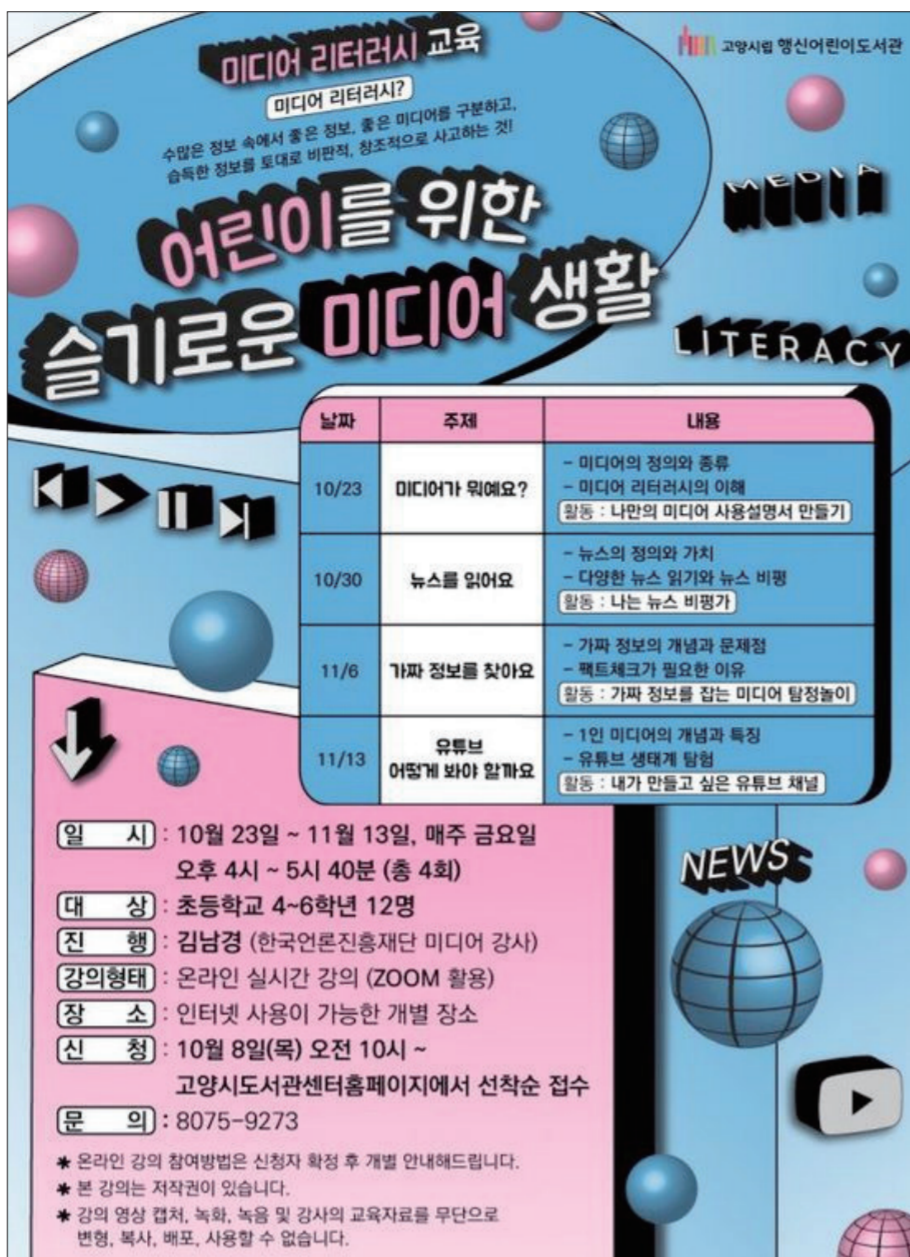


고양시 행신어린이도서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어린이를 위한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운영

고양시 행신어린이도서관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어린이를 위한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을 운영한다. 강의는 김남경 강사가 맡는다.

10월 23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4회 차로 운영된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모든 교육과정은 온라인 실시간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1인 미디어시대가 되면서 어린이들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재미있고 자극적인 정보들을 자주 접하지만 그것이 진짜 뉴스인지 검증된 정보인지 아닌지, 혐오표현이 과감하지 않았는지 어린이들이 구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들이 미디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슬기롭게 이용하며 나아가 1인 미디어의 특징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은 미디어가 뭐예요?-나만의 미디어 사용설명서 만들기 뉴스를 읽어오-나는 뉴스 비평가 가짜 정보를 찾아오-가짜 정보를 잡는 미디어 탐정놀이 유튜브 채널 등 총 4가지의 주제로 구성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수많은 정보 속에서 좋은 정보, 좋은 미디어를 구분하고, 슬기로운 정보를 토대로 비판적,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것!

어린이를 위한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날짜	주제	내용
10/23	미디어가 뭐예요?	- 미디어의 정의와 종류 -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 활동: 나만의 미디어 사용설명서 만들기
10/30	뉴스를 읽어오	- 뉴스의 정의와 가치 - 다양한 뉴스 읽기와 뉴스 비평 활동: 나는 뉴스 비평가
11/6	가짜 정보를 찾아오	- 가짜 정보의 개념과 문제점 -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 활동: 가짜 정보를 잡는 미디어 탐정놀이
11/13	유튜브 어떻게 봐야 할까요	- 1인 미디어의 개념과 특징 - 유튜브 생태계 탐험 활동: 내가 만들고 싶은 유튜브 채널

일시 : 10월 23일 ~ 11월 13일,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 5시 40분 (총 4회)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12명
진행 : 김남경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강사)
강의형태 : 온라인 실시간 강의 (ZOOM 활용)
장소 :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개별 장소
신청 : 10월 8일(목) 오전 10시 ~ 고양시도서관센터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문의 : 8075-9273

* 온라인 강의 참여방법은 신청서 작성 후 개별 안내해드립니다.
* 본 강의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 강의 영상 캡처, 녹화, 녹음 및 강의의 교육자료를 무단으로 변경, 복사, 배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연 신청은 10월 8일부터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받고 있다.

김영근기자

안동시, 안동생강 '21년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 공모사업 선정

안동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1년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으로 2022년까지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요 소득작물인 안동생강의 품질 경쟁력과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한다. 안동생강 생산자연합회와 안동농협생강공동출회 2개 조직의 7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안동농협에서 사업 추진을 맡았다. 참여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농가조직화 교육, 공동 경영체 구축을 위한 컨설팅이 추진되고 안동시는 주산지 협의회를 구성해 지원하게 된다. 참여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파종기, 수확기 등 공동농기계를 확보하고 살균, 액상충진, 다집포장 등 품질개선 장비를 구축해 다양한 상품개발로 판로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는 지난 2016년에 원예농산물 저용유통체계 구축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2019년 '채소류출하조절센터'를 준공해 전국적인 생강 공급 기지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과 연계해 조



미채소로서의 생강뿐만 아니라, 한약재 등 다양한 기능성식품의 제조·가공 원료 공급처로서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안동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북안동농협의 산약, 2018년 서안동농협의 콩을 대상으로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을 추진해,

파종, 수확, 선별, 저장, 유통 등 품목별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사과, 고추, 참깨 등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경쟁력 있는 공동경영체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과일의 고장 영동군의 명물, 탐스러운 백년배 수확

봄의 냉해, 유래없는 여름의 긴 장마 이겨내고 여전히 위세 자랑

과일의 고장 충북 영동군의 100년 넘은 배나무가 봄의 냉해와 여름 여름 폭염, 태풍의 거센 비바람을 이겨내고 탐스러운 배를 가득 일궈냈다. 영동을 매천리 과일나라테마공원 내 자리 잡은 이 20그루의 배나무들은 107살 안팎으로 추정된다. 심천면의 원조 후지사과와 더불어, 과일의 고장 영동을 알리는 상징적 존재다. 신고 품종으로 수고 3~3.5m, 둘레

1.5~2m 정도로 한 나무에 70~100개의 배가 생산될 정도로 노익장을 과시한다.

100년의 세월이 영근 열매를 먹으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울여름 유난히도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의 거센 비바람으로 수확에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체계적인 관리 덕에 여전히 예년 정도의 수확량을 일궈냈다. 수확된 배도 여전히 달고 시원한 신고 배 특유의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군은 지난 12~13일 가을 햇살 받아 탐스럽게 영근 배 수확을 시작했다

다. 그동안 힐링사업소 직원들이 전정과 병해충 방제, 시비 등 정성스럽게 직접 농사를 지은 결과여서 수확의 기쁨을 한층 더 하고 있다.

수확한 배는 과일의 고장 영동을 알리는데 활용하거나 체험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1년간 정성스러운 손길과 과학적인 관리로 100년 배나무들이 올해도 건강하게 자라 결실을 맺었다"며 "영동군의 자랑이자 과일나라테마공원의 마스코트인 이 배나무들의 생육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만식기자



주민총회, 우리는 온라인으로 참여해요

당진시, 전국 최초 자체개발 앱 활용해 전 읍면동 주민총회 완료

당진시가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2달여간 진행된 14개 읍면동의 2020년 주민총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주민총회에는 총 6,038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67건의 마을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주민총회는 마을계획동아리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발굴한 의제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사업의 실행여부를 결정하고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추진하는 광장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 하는 등 다수 주민이 모이는 오프라인 주민총회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해 개발한 주민참여 플랫폼 '우리동넛'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총회를 진행했다.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모든 읍면동에서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한 것은 전국에서도 유

례없는 첫 번째 사례로 온라인 주민총회에 익숙지 않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지역 중·고등학교나 마트를 방문해 홍보활동을 진행

했으며 홍보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투표를 독려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주민총회에 참여한 시민은 모두 6,038명으로 이는 당초 시가 올해 목표로 잡았던 전체 인구의 1.7%보다 많은 3.6%에 해당하며 지난해 주민총회 참여 인원인 2,560명보다 235%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별로 인구 대비 주민총회 참여비율이 높았던 곳은 대호지면, 면천면, 순성면, 정미면으로 조사됐으며 14개 읍면동 중 가장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지역은 당진 3동으로 802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자치활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다.

주민총회 안건은 '면천면 캐릭터 개발'을 비롯해 모두 8건의 안건이 주민총회 의제로 선정된 면천면이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지역은 3~6건의 사업이 발굴돼 총 68건의 사업이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중 대호지면 마을의제인 '면 홍

보책자 발간'은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며 제안된 모든 마을의제가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시민들의 실질적 의사 결정력을 보여줬다.

또한 신평면 마을의제인 '금천리, 거산리 산업철도 노선 변경'은 단순 사업이 아닌 지역의 현안사항을 주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시민들이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한 사업은 각 읍면동별로 2,500만원의 사업비 내에서 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조정하고 사업의 성격별로 시민참여예산이나 도민참여예산 등 각종 공모를 통해 추진하게 된다.

박병선 공동체새마을과장은 "시에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주민참여 플랫폼 '우리동넛'은 직장이나 육아,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현장에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라며 "올해 온라인 주민총회를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텃밭정원 개장

나주시가 농업기술센터 건물 옥상에 텃밭과 정원이 어우러진 텃밭 공간을 조성했다. 나주시는 12일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 3층 옥상에 조성한 텃밭정원 '꽃구름' 개장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도시농업공간 조성은 도시농업 인프라 확대 및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영도시 농업농장 실내식물 조성시설 옥상텃밭 조성 등을 추진한다. 시는 2년 연속 공모 선정에 힘입어 지난 해 빛가람행정복지센터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옥상 공간 500㎡에 텃밭정원을 조성했다. 국비 등 사업비 7800만원이 투입된 옥상텃밭정원은 '기억'자 형태로 채소와 허브 등 다양한 작물을 기를 수 있는 텃밭상자와 테이블과 벤치 등 휴식 기능을 갖춘 아담한 카페 공간이 마련됐다. 또 기존 높은 담벼락에 가려졌던 확 트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옥상 모서리 공간에는 데크형 전망대가 설치돼 눈길을 끈다. 명칭인 '꽃구름'은 꽃과 구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개장식에 참석한 강인규 나주시장은 "텃밭정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내방객들을 위한 여가·휴식 공간이자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공모사업에도 도전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을 확장시켜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사천바다케이블카, 10월 SNS 이벤트 진행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10월을 맞아 사천바다케이블카 야간개장을 기념하고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케이블카 야경 소문내고 선물받자' 이벤트를 실시한다.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팔로우한 뒤 이벤트 게시물에 케이블카 야경에 대한 기대 등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친구태그와 댓글 내용, 기타 준수사항을 확인한 후 당첨자 30명에게 2만원 상당의 도미노피자 교환권을 증정한다.

위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시작 당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사천바다케이블카 공식 SN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남궁영기기자



친구태그 EVENT

사천바다케이블카 야경맛집 소문내고 선물받자!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아름다운 '밤바다'를 친구에게 알려주세요!
이벤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드림!이다

10.14-18

사천바다케이블카

전북도,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도 경계 위반, 무허가·무등록 어선 등 불법조업 집중 지도·단속

전라북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해상 및 육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전라북도 및 수협,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전라북도는 어업지도선 4척과 어업감독공무원 20여 명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 경계 위반 불법조업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허가외의 어구적재 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위반 김양식장 무면허 시설 어구사용 금지기간·구역 위반 불법어구사

용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특히 전라북도 해상 경계를 원선해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관내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힘을 계획이며 전라북도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해상 및 육상 단속을 병행해 최근에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내용도 비어업인·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수산법'에 허용되지 않은 어구 등을 제작·판매·적재 시에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 받았으



나, 최근 법령개정으로 수입·보관·운반·진열 행위까지 확대 처벌토록 시행에 들어갔다.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인 만큼 이번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이 남획되지 않는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겠다"며 "전라북도 해역에서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 지도·홍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음성군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개

11월 5일부터 시작, 변동사항 속지 필요

충북 음성군은 오는 11월 5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했으나, 이후 교통사고 위험 증가로 인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내용으로 혁신도시 가스안전공사, 동성초등학교 후문, G마트 부근 등의 3개소와 대소면 시가지 7개소, 총 10개소에 대한 단속이 새롭게 시작된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시, 기존에 시행됐던 중식시간 유예를 폐지한다.

또한, 삼성면·대소면에 한해 평일 전통시장 개설일에도 단속을 실시하

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인도위 주정차도 신고 대상에 추가한다. 대소면의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8시~19시이며 유예시간은 20분이 고 어린이보호구역인 대소초등학교 후문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중식시간 유예를 실시한다. 기존에 시행됐던 구간은 단속 시간 및 유예시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 상황을 현수막 게재 현장 홍보활동 주정차 단속 카메라 LED 각읍·면 이장단들에게 홍보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각별히 주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를 보는 차주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청주시, 가을철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실시

노면포장상태, 안전표지, 자전거횡단도와 거치대 등 정비 추진

남해군은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를 기해 남해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초기 확산 방지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양식어장 주변 적조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남해군은 공공용 방제선단을 적조발생 해역에 긴급 투입해 초동 확산 방지를 위한 황토 살포 작업을 진행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남해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적조주의보를 발령한 해역은 '전남 여수 돌산읍 성두리 종단~통영시 수우도 종단'이다.

남해군은 긴급 초동 대응에 이어

남해 연안 전체 해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적조 발생상황을 SMS와 밴드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양식어장에 대한 산소공급, 사육 밀도조절, 사료공급량 조절 등 어장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적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수온이 내려가는 시기로 개체 수는 차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남해군은 "어업인 스스로도 어장관리와 액화산소 등 개인별 대응장비를 가동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달라"며 "남해군에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조방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인용기자

남해군 연안 '적조주의보' 발령

초기 확산 방지 총력... "수온 하강에 개체수 감소 예상"

남해군은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를 기해 남해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초기 확산 방지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양식어장 주변 적조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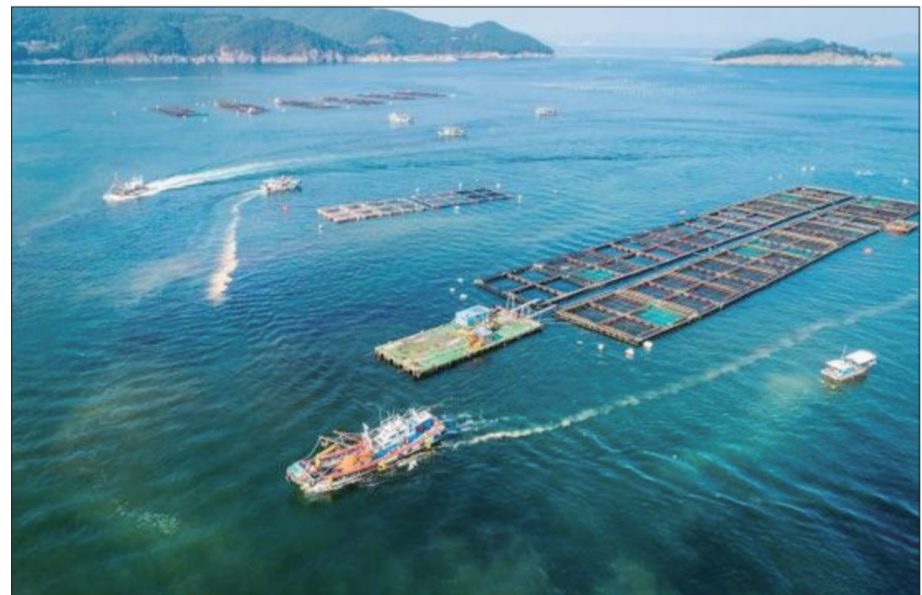
특히 남해군은 공공용 방제선단을 적조발생 해역에 긴급 투입해 초동 확산 방지를 위한 황토 살포 작업을 진행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남해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적조주의보를 발령한 해역은 '전남 여수 돌산읍 성두리 종단~통영시 수우도 종단'이다. 남해군은 긴급 초동 대응에 이

어 남해 연안 전체 해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적조 발생상황을 SMS와 밴드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양식어장에 대한 산소공급, 사육 밀도조절, 사료공급량 조절 등 어장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적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수온이 내려가는 시기로 개체 수는 차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남해군은 "어업인 스스로도 어장관리와 액화산소 등 개인별 대응장비를 가동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달라"며 "남해군에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조방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인용기자



진주시, 구제역·AI·ASF 특별 방역기간 설정 운영



내년 2월말 까지,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한 차단방역 강화

진주시는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구제역·AI·ASF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가축질병 과거 발생 시기, 철새도래시기 및 주변국 발생상황 등을 감안해 가축질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구제역·AI·ASF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방역 체계에 돌입해 질병의 심숙 초기 신고 체계를 유지하면서 가축질병 예방과 축사소독, 구제역 예방접종 등 농가방역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는 지난 9일 강원도 화천군 양동농가 ASF 발생과 조류인플루엔자 주의단계에 따른 선제적 방역조치로 생석회 1500포를 일괄 구매해 지난 12일부터 농가

에 배부 하고 있으며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단체에 구제역·AI·ASF 차단방역 대책을 홍보하고 가축질병 책임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구제역 예방접종 독려, 축사소독, 철새도래지 주변과 질병 발생지역 방문 자체 홍보 등 특별 관리토록 하고 있다.

특히 매주 수요일을 "축사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해 축사관련 시설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구제역 접촉을 10월말까지 완료해 질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 준비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AI·ASF 전파 주요 원인이 발생지역의 농장 출입자, 야생멧돼지, 야생조류 분변, 축사차량 등으로 추정되는 만큼 축사 시설 방문 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농가에서는 야생동물 침입방지 등을 설치하고 의심축 발생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광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 발행시기 : '20.9.1.부터
-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관내 농협 방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직장인 소득공제 30%
- ☎ 339-8822
-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합지로의 예술환상곡, 을지판타지아展 개최

을지로4가 산림동 일대, 10월16일~11월14일까지 예술공간으로 변신

중구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을지로4가 산림동 일대에서 중구문화재단이 마련한 '을지판타지아展'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을지로는 낮과 밤, 안과 밖을 아우르며 일상 속 도시 공간이자 무대가 펼쳐지는 극장의 판타지아로 변신할 예정이다.

중구문화재단은 '을지판타지아展'을 통해 도심 산업 현장과 예술이 만나는 플랫폼으로서 2020년의 을지로를 조명한다고 전했다.

산림동 일대는 여전히 크고 작은 철공소가 자리잡은 도심산업의 최전선이지만, 이 기간만큼은 좁은 골목 사이를 거닐며 우연히 마주치는 예술 작품들로 해금 관객들은 을지로의 일상을 새로운 모습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먼저 관객들은 '을지판타지아展' 기간 동안 을지예술센터에서 '을지 드라마'와 '을지산수'를 감상할 수 있다.

을지예술센터는 창고 건물을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이 곳에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이 공존하는 드라마틱한 을지로 각양각색의 시각과 사고방식을 포용하게 된 동시대 모습을 여러 작가들이 미술로 표현한 '을지 드라마'가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을지로 도심의 문화와 풍경을 재해석해 건물의 외벽을 14점의 회화작품으로 둘러싸는 '을지산수'는 산림동 일대 곳곳에서 관람이 가능하나 센터 4층 옥상이 전시 감상에 제적이다. '을지판타지아展'의 백미는 '을지판타지아 : daydream'이다.

이번달 17일~18일 밤에만 열리며 조명과 공구 산업이라는 전통적인 을지로의 이미지를 빛과 소리로 표현한 멀티미디어아트 전시다.

17일 저녁에는 을지로를 콘셉트로 하는 밴드 및 디제이 퍼포먼스를 실시간 라이브 스크리닝을 통해 만날 수도 있다. 전시에 참여한 주요 작가로는, 장르간 경계를 넘나들며 을지로만의 소리를 아카이빙한 설치작가 윤지웅과, 동시대의 면면을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재구성하는 설치작가



진기중, 고양이를 소재로 을지로의 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이원경 작가가 있다. 전시 현장 관람은 선착순 사전 예약제로 접수 받고 있으며 희망하는 관람일자와 회차를 선택해 진행한다. 방역지침을 준수해 회당 관람인원은 70명으로 제한한다.

매일 저녁 7시에는 을지로 4가 일대 지역과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무료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을지로의 다양한 매력을 양분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감각의 예술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한 이번 전시에서 '오래된 미래, 을지로'의 특별한 풍경과 분위기를 경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마을공동체 AtoZ'... '강남마을아카데미' 온라인강연 연다

10.13~14, 20~21 '마을, 천천히 재생' 등 총4회... 비대면 수업 진행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2020 강남마을아카데미'를 13~14일과 20~21일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2020 강남 마을아카데미'는 총4회에 걸쳐 진행되며 13일에는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마을, 천천히 재생: 도시를 치유하고 마을을 살리는 비법'을 주제로 이른날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가 '인권과 성평등: 모두의 마을을 위한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강연을 이어간다.

20~21일에는 박영선 한양대 교수와 유창복 미래자치분권연구소장이 각각 '공동체의 변화와 성장: 사회적 가치, 공익활동 그리고 시민의 힘'과 '주민자치 활성화: 시민의 참여로 만드는 마을'을 주제로 강의한다.

모든 강연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구 홈페이지 또는 '더강남' 앱을 통한 사전 신청자에게 문자로 온라인 접속링크를 개별 발송한다.

이수진 주민자치과장은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는 마을 활동의 필요성과 역할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며 "보다 많은 주민들과 함께 '미미위 정신'을 공유해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연월일	시간	강사	주제
10.13(목)	10:00-12:00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	마을, 천천히 재생: 도시를 치유하고 마을을 살리는 비법
10.14(금)	10:00-12:00	박영선 (한양대 교수)	인권과 성평등: 모두의 마을을 위한 인권과 성평등
10.20(목)	10:00-12:00	유창복 (미래자치분권연구소장)	공동체의 변화와 성장: 사회적 가치, 공익활동 그리고 시민의 힘
10.21(금)	10:00-12:00	이수진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 활성화: 시민의 참여로 만드는 마을

신청기간: 2020.10.13(화) ~ 10.14(수) 18:00까지
신청방법: 구 홈페이지 또는 '더강남' 앱
문의: 02-5470-4023

강서구,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서

강서구, 상인연합회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

서울 강서구는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과 점포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강서구청 골목상권 리더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서구청 먹자골목 상인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지난 8일에는 강서구청, 먹자골목 상인연합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역량강화 교육'과 '시설개선 지원'을 골자로 한 '강서구청 먹자골목 상권 활성화 업무 협약'이 있었다. 골목상권 리더 역량강화 교육은 상인연합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문 컨설팅에 대한 요청이 많아 먹자골목 내 77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개별 상인 맞춤형 컨설팅으로 경영진단을 통한 고객관리 방안,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상품·서비스 개발, SNS 마케팅 등도 상담해준다. 개인사업자라면 어려울 수 있는 세무, 노무, 회계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컨설팅도 1:1로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간판, 인테리어, 냉·난방기 등 점포 내외부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업

소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해당 점포는 10%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된다.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점포 내외부 환경 개선을 돕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함에 따라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상인과 이용객 만족도 모두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 5월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말 완료될 목표액의 50% 이상을 확보했다. 특히 브랜드 개발 등 거리 개선 사업 등도 시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구 관계자는 "상인연합회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업이 구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2020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 온라인으로 관객을 만난다

다양한 채널 통해 전세계로 생방송 공연 송출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경기일보는 오는 10월 16일 ~ 17일 이틀간 '2020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전면 온라인 생중계로 전환했다.

온라인 생중계는 KBS K-POP과 1 THE K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내·외에 락 페스티벌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게 된다.

국내 출연진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음악 세계를 가진 밴드 자우림, 경이로운 음역대와 폭발적인 사운드의 국카스텐 그리고 국내에 많은 락 마니아 팬덤이 있는 부활, 넬, 이디오테일, 봄여름가을겨울 Re:union with 빛과소금, 갤럭시익스프레스, 비와이, 킹스턴루디스카, 새소년, 동양고주파, 이희문컴퍼니가 출연해 페스티벌 마니아들의 가을을 락의 열기로 뜨겁게 달궜다.

해외 출연진으로는 4년 만에 새 앨범 발매를 앞둔 영국 대표 모던록 밴드 트래비스와 포스트 메탈의 대표적인 미국 밴드 데프헤븐이 랜선 공연을 통해 관객과 만난다.

올해 15주년을 맞이하는 '2020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온라인 공연을 통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락 마니아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락의 열기와 열정으로 가을을 뜨겁게 달구고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락의 정신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자,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페스티벌 마니아를 선착순으로 600명 모집했다.

온라인 페스티벌 마니아는 화상채팅 프로그램 줌을 통해 참여하는 랜선 인터뷰 관객으로 보고 싶은 가수나 인터뷰, 메시지 댓글로 실시간 소통하며 열정적인 아티스트의 공연에 열기를 더할 뜨거운 합성을 대신한다. 이와 함께 지역 음악산업 상생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미래음악인 발굴·육성 프로젝트인 '펜타유스스타'에 299개 팀이 사전 접수했으며 온라인 영상 심사를 거쳐 총 6개 팀이 선정됐고 대상을 수상한 재능공과 금상을 수상한 데일밴드는 페타포트 무대에 서게 된다.

김중남기자

2020 온라인 강동교육주간 개최

강동구,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다양한 교육행사 진행

강동구가 지난 10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6일 동안으로 '2020 온라인 강동교육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 중이다. '강동교육주간'은 매년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해의 결실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다.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강동혁신·미래·평생 세 개의 카테고리로 진행되며 www.강동교육주간.com으로 접속하면 주민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다. 강동혁신교육 랜선박람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 마을교사가 참여해 학습꾸러미 체험, 방구석 콘서트, 온라인 마을탐방, 작가 특강, 공감토크 등 분야별 교육주체들이 함께 만든 콘텐츠로 풍성하게 채워진다. 주민참여 코너인 강동혁신교육 퀴즈에 참여하면 재미있는 학습꾸러미 상품도 받을 수 있다.

강동미래교육박람회는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김경범 교수, 구글 코리아 김태원 상무의 미래교육

특강을 시작으로 지역 내 고등학교가 모두 참여하는 고교진학 설명회, 온라인으로 만나는 진로직업체험 등 진로·진학 분야 콘텐츠로 이뤄진다. 강동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사전신청하면 신청자에 한해 별도 링크주소가 전송된다. 평생교육박람회에서는 강동구 평생학습관 회원들의 작품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작품전시회와 더불어 흥차수업, 홈베이킹, 플랜테리어, 마음코칭 등 주민 인기강좌가 진행된다. 강동구 평생학습관에서 사전신청하면 수강 가능하다. 이 밖에도 공간과 색채를 개선함으로써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공간으로 변화한 학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꿈꾸고 만드는 행복학교' 코너도 마련돼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교육만은 멈출 수 없다는 열망들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앞당기고 있다. 온라인 강동교육주간을 통해 시공간의 벽과 교육격차를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교육 인프라를 주민 모두가 마음껏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동대구 2차 비스타동원

'서울숲 소셜벤처 EXPO' 온·오프라인으로 만나다

성동구, 16일부터 열흘간 온·오프라인 '제4회 서울숲 소셜벤처 EXPO' 개최

서울 성동구는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서울숲 소셜벤처 EXPO'를 오는 16일부터 10월 25일간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의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하며 지난해 보다 두배에 가까운 230여 개 업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소셜벤처 축제로 열린다. 첫날 16일은 개회식을 비롯 소셜벤처 기업들의 주제토론회와 사례발표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도심 속 쓰레기 문제 해결'라는 주제로 다양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노력을 진행 중인 중견 소셜벤처들이 사례를 발표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 나간다. 연이어 구에서 5억원, 민간투자사에서 15억을 지원해 선정된 20억의 투자금을 창업 7년 이내의 소셜벤처들에 투자하는 '성동 임팩트 펀드' 조성 발표식이 열리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선정하는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의 결과발표도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소셜벤처 업체들의 판로지원 및 홍보도 빠질 수 없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내 164개 소셜벤처기업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기업홍보관'이 만들어진다.

기업활동을 소개하고 기업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하는 등 공공기관과 민간 투자사들에게 기업을 알릴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홍보채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직접 상품을 판매하

는 '소셜벤처 가치장터'도 열린다.

온라인 기획전과 오프라인 편집숍 두가지 형태로 진행되며 총 68개사의 111개 상품이 입점 돼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엑스포 기간 가장 눈에 띄는 행사는 '성수소셜벤처밸리 보물을 찾아라'이다. 성수동에 조성된 국내 최대 소셜벤처밸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엑스포 범용 프로그램으로 소셜벤처 허브센터와 헤이그라운드, KT&G 상상플래닛 등 소셜벤처 공유오피스를 비롯해 서울숲과 언더스탠드에비뉴, 성수동 일대 등 소셜벤처 핫플레이스를 돌아다니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곳곳에 숨겨있는 보물을 찾는 온·오프라인 게임이다. 구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소셜벤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게임의 형태로 구성했으며 다양한 소셜벤처 거점 및 기업을 알리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침체되어 있는 업계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으며 NFC 태그 형태로 되어있는 보물을 획득하면 각 단계별로 다양한 사은품 등 리워드 혜택도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소셜벤처 엑스포 홈페이지의 이벤트·모바일 게임 카테고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QR코드로 접속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정원외 성동구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셜벤처를 이끄는 사회혁신가들이 새로운 사회문제를 조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엑스포가 소셜벤처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해 사회적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동작구, '2020 노들난장' 온라인으로 개최

오는 28일 동작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해 약단광칠, 타고 등 6개 팀의 전통국악공연

동작구가 '10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 오는 10월 28일 수요일 온라인으로 '2020 노들난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들난장'은 아리랑, 천안삼거리 등과 더불어 5대 민요로 불리는 우수 지역문화콘텐츠인 '노들강변'을 모티브로 기획한 국악축제로 지역예술가와 주민회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2020 노들난장'은 '노들강변'의 배경이 되는 노들나무공원에서 진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축제로 전환해 진행한다.

먼저 전통문화예술가 3팀, 지역예술가 3팀 총 6팀이 전통국악공연을 준비했다. 한국무용 영재 박솔지의 '진도북춤'을 시작으로 지역예술단체 '여우락'이 무대를 갖는다.

일제강점기의 노들강변을 2020년으로 소환하는 '민요밴드 비오비', 국악이지만 블루스 같은 '뮤르'의 타령공연과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축제'에 참여한 '타고'의 북춤이 어긋을 예술로 승화된 '약단광칠'이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6개 팀의 공연영상은 28일 동작문

화재단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노들난장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아리와 함께하는 '온라인 Ari랑 국악나들이' 가야금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가야금 자세 및 튜닝 소개 아리랑 도라지 연주 등 온라인으로 4회차 가야금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사육신역사관 연계프로그램으로 '조선의 책 향기'를 통해 전통제본방식의 책과 책갈피 제작 체험을 진행한다.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6일까지 동작문화재단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가야금체험'은 성인 10명 선발, '조선의 책 향기'는 구민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문화재단 홈페이지, SNS를 참고하거나 동작문화재단 문화사업팀 또는 체육문화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진희 체육문화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국악공연을 통해 치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지역 문화관광자원 발굴을 통해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서초구, '스마트 인솔'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과 자립훈련을 위해 GPS내장된 '스마트인솔' 신발 깔창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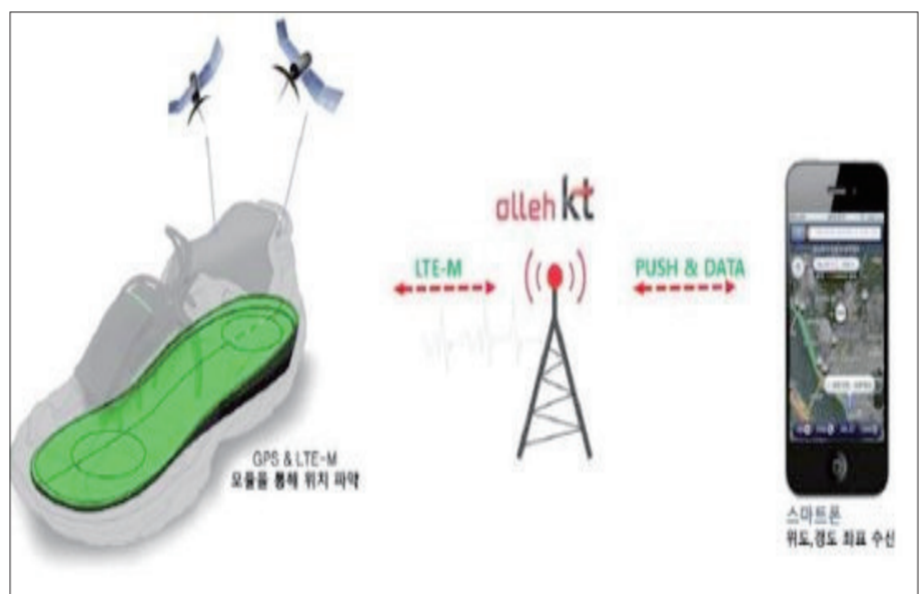
서초구는 관내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과 자립 훈련을 위해 위치추적기가 내장된 신발 깔창인 '스마트인솔' 보급에 나선다.

구가 스마트 인솔 보급에 나선 것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실종이해마다 8천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이 중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건수는 2018년에만 65건에 달하고 있으며 실종이후 각종 범죄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지적장애나 자폐로 외부활동에 제약이 있는 기초수급 발달장애인 13명을 선정해 '스마트인솔'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이 평소엔 신는 신발에 GPS가 내장된 신발 깔창 '스마트인솔'을 넣으면 발달장애인의 위치가

보호자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통보되고 발달장애인이 지정한 거리나 위치를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곧바로 경고 문자 메시지가 자동 발송된다. 그간 비슷한 목적으로 순목시계 형태의 '배회감지기'가 있었으나, 착용을 싫어하는 발달장애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구는 실종됐을 때 빨리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스마트인솔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위치추적을 통해 행동 패턴 분석이 가능해 발달장애인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구는 발달장애인이 보호자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마음놓고 지역사회 활동이 가능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이번 보급의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조진희 구정장은 "실종률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스마트인솔 지원으로 실종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발달장애인이 혼자 외출

해도 걱정없는 안전한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대원/기자

농수산물은 **진도** 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몰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경북 관광의 미래를 찾습니다. 스타관광벤처 육성사업 공모

11.8일까지, 경북 3대 문화권을 활용한 경북관광 혁신 아이디어 모집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 '제2회 경북 스타관광벤처 육성사업'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은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을 활용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으로 관광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경북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된다. 3대 문화권 사업: 경북지역에 산재한 유교, 신라, 가야의 3대 문화와, 낙동강, 백두대간 생태축을 활용해 경북을 역사와 자연, 인간이 빚어낸 한 문화의 분향으로 조성하는 사업. 공모를 통해 스타관광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화 지원금 1500만원 지원,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등을 통한 법률 및 회계 등 경영교육, 1:1 맞춤형 컨설팅, 국내 홍보·마케팅, 관광벤처 간 네트워크 기회, 온라인 관광플랫폼 등과 연계한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상북도 3대 문화권 및 낙동강·백두대간이 포함된 생태축을 활용해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장

에 실제 적용할 수 있거나, 경북 지역의 새로운 가치와 효과를 창출하는 콘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방안 등을 담은 지원서를 공모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에 직업, 나이 등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공개오디션 등을 통해 최종 15개 예비사업자 및 개인·법인사업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김상철은 "이번 공모전은 경북 관광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다"며 "특히 경북 3대 문화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3대 문화권 사업장의 막강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어 코로나로 위축된 경북관광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형기자



경상북도 스타관광벤처 육성 공모전

2020. 10. 14. (수) ~ 2020. 11. 08. (일)
15개 내외 업체 선발

선정혜택

- 사업화 지원: 사업화 지원금 1,500만원 지급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업-경영지원 컨설팅 1:1전문가 컨설팅
- 홍보마케팅 지원: 공동 홍보마케팅 및 판로개척

참여대상
관광산업에 관심있는 예비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법인

문의처
경북스타관광벤처 공모전 운영사무국
홈페이지: gbtourventure.or.kr
전화: 070-4848-0838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개관 10주년 안동무궁화 기념 식수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지난 10일 10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광장에서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안동무궁화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권영세 안동시장, 김호석 안동시의회의장, 김형동 국회의원, 정승희 한국예총안동지회장, 조광래 안동미협고문, 김민성 안동정총합장단 지휘자, 여해숙 꿈의오케스트라 강사, 진유리 안동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BTL방식으로 건립되어 운영을 담당하는 최우섭 GSI 소장, 개관 시 전당에 소나무를 기증한 천성용 창성공조 대표 등 10명이 참석해서 축하와 기념식수를 진행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BTL방식으로 사업비 495억원을 투자해 2008년 1월 착공해 2010년 9월 17일 개관을 했다.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웅부홀, 백조홀, 야외공연장, 4개의 전문 갤러리, 4개국 동시통역이 가능한 국제회의장, 24레인 국제규격의 볼링장, 배드민턴장을 포함해 크고 작은 연습실을 구비하고 있다.

전당은 개관 후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지역민들이 대도시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해외 및 국내 대형 라이선스 공연과 명품클래식시리즈 공연, 연극시리즈, 세대를 공감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브런치 콘서트, 문화가 있는 날 등 상설공연도 진행하고 있다. 갤러리에서는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전시와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유아에서 시니어까지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을 찾아오는 계기를 마련해 미술관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역할도 하고 있다.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아서 예술인 및

문예회관 관계자들의 축제의 장인 해비아트페스티벌에서 전국 250개 공연장 중에서 당당하게 문화예술회관분야 최고의 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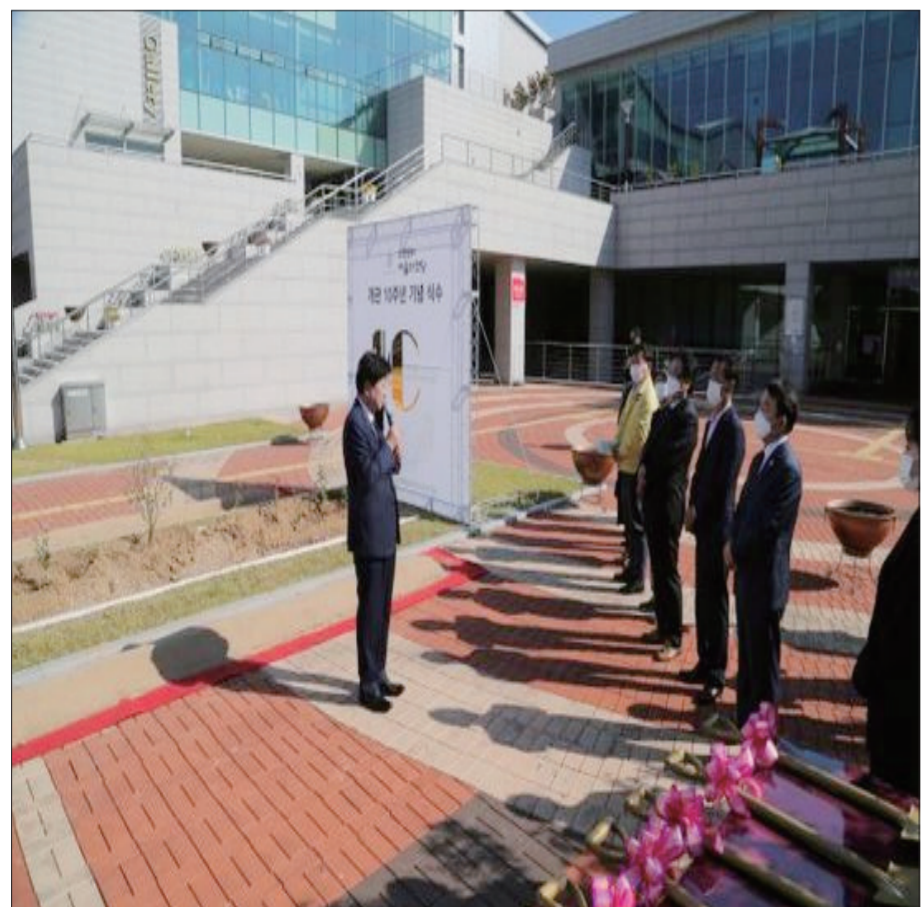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의 특색 있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안동원아트페스티벌과 지역예술단체와 함께하는 벚꽃길 야외공연,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관객층을 위한 브런치 콘서트, 무더운 여름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아트바캉스 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개관 1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대구·경북 최고의 문화예술기관으로 거듭나서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에 기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전국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많은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을 더 멋지게 운영해 주길 당부 한다"고 했다.

김호석 안동시의회의장은 "개관 후 10년간 쉽 없이 달려온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이 더욱 풍성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민들이 행복하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병기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많은 공연과 전시를 준비 하였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기념식수만 하는 것이 많이 아쉽지만 "지역의 문화예술발전과 활성화를 물론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문화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난 10년 보다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것으로의 10년을 준비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판중왕이 마을에 물든 새마을운동



김천시, 인도네시아 수방시에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김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5년간 인도네시아 수방시의 판중왕이 마을을 대상으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 재단에서 새마을 운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저개발국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경북형 새마을 ODA사업으로 올해기준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등 9개국 35개 마을을 조성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 수방시는 우리 시와 인연이 깊은 도시이다. 수방시에서 2014년 우리 시 방문을 시작으로 양 도시가 매년 시민의 날 등 주요 행사 참석, 김천의료원 의료 봉사 및 수방시 의료진 의료연수 등 인적교류로 우호관계를 이어오다 2017년 10월에 자매 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판중왕이 마을은 인도네시아 수방시의 한 마을로 인도네시아에서 4번째로 조성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이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승용차로 3~4시간 거리에 위치한 마을로 2,420가구 7,488명이 거주하며 주민 대다수가 농업과 양어업, 가족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른 해외 시범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보다 시장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내륙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 시는 새마을 세계화 재단과 함께 '함께하는 새마을 운동, 살기 좋은 판중왕이'라는 사업 슬로건 아래,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새마을 조직 육성 및 생활환경 개선, 소득 증대 사업 추진에 주력해 기울였다. 우선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마을위원회를 결성하고 마을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지원센터를 건립했으며 저비용 고품질 사료 생산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양어사료 공장을 건립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마을기업지원센터와 양어사료 공장 준공식에 우리 시와 의회가 함께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네트워크 회의를 주관하기도 했다. 특히 본 사업 성과 중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로 마을 경관이 파괴되고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판중왕이 마을 내 "빨라사리" 부락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분리수거대와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이윤 창출 사업이 현재는 마을 전체 5개 부락에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수방시 내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현재 수방시 전역으로 확대되어 70개 마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하드웨어 구축 사업과 함께 판중왕이 마을 주민 대상으로 의식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 공유와 새마을사업을 이회시키기 위해 새마을교육을 진행했으며 이외에도 파과야 재배 등 농업기술 교육, 부녀자들의 위상 및 역할 증대를 위한 가공식품 만들기, 재봉교육 등을 실시해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5개년에 걸친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대규모 사회적봉쇄를 시행함에 따라 예년에 비해 활동이 축소되었으나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판중왕이 마을 주민들은 쉽게 달리고 있다. 김충섭 진천시장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수방시 판중왕이 마을에 큰 변화 일어났다. 양어사료 생산 및 재활용품 판매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하고 분리수거 시스템 정착을 위해 새마을 조직 육성과 생활환경 개선, 소득 증대 사업 추진에 주력해 기울였다. 우선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마을위원회를 결성하고 마을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지원센터를 건립했으며 저비용 고품질 사료 생산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양어사료 공장을 건립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마을기업지원센터와 양어사료 공장 준공식에 우리 시와 의회가 함께 방문해

양현석기자

'안동댐 월영교 빛의 정원'에서 "낭만"에 취하다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아름다운 야경

안동시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월영교 주변 야간경관 개선을 위해 추진한 선비야기여행 월영교 빛의 정원 조성사업을 완공했다.

작년 월영교 빛의 정원 1단계 사업에서 원이엄마 테마길부터 안동민속촌 연못 일원까지 경관조명을 설치했고 올해 2~3단계 사업으로 월영공원과 영락교에 보행안전과 불거리 제공을 위한 연출조명을 구현했다.

영락교와 월영공원은 저녁이 되면 기존 조명이 어두워 일찌감치 발길이 끊길 뿐만 아니라 기 구축된 월영교와 개목나루의 야간경관과 연계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었다.

김영호기자



청송사랑화폐, 내년도 150억원의 제작비용 국비 확보-화폐 제작비용의 8% 지원받아

청송군, 국비 확보 힘입어 10% 할인판매 확대 등 총 250억 발행 예정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올 초부터 발행되면서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청송사랑화폐'의 내년도 유통 계획을 발표했다. 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확진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2021년도 '청송사랑화폐'를 총 25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며, 이 중 10% 특별 할인판매로 180억(국비 제작 150억)을 유통할 방침이다. 특히 청송군은 청송사랑화폐가 구매 주민들에게 할인혜택(행사시 5%, 명절등 10%)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며 지역경제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는 점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점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그 결과 150억원의 화폐 제작(발행) 비용 12억을 국비로 지원받아 내년도 10% 특별 할인판매를 180억 규모로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의 위축된 경제활동 회복과 군민들의 불안한 소비심리가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여러분들이 청송사랑화폐의 구매·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군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가 야심차게 추진한 청송사랑화폐는 발행 첫해인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인 경기 침체현상이 있는 가운데서도 국가재난지원금 및 도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농민수당을 비롯한 각종 정책수당 등으로 활용되면서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원형기자



경상남도사, 30여 년 만에 출간되다

7년 동안 집필위원 150명·편찬위원 20명 참여, 원고 4만 5천 매

경남도가 32년 만에 경상남도사를 새로이 출간했다.

7년의 편찬기간 동안 집필위원 150명, 편찬위원 20명이 참여했고 원고 분량만 4만 5천 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의 경남 역사서 중 가장 방대한 분량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12일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김영기 책임편찬위원으로부터 도사 출판본을 전달받았으며 이만열 책임감수위원과 김영기 위원에게 감사패를, 김우태 도사 편찬위원회 실무 간사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하며 도사 편찬에 애써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경상남도사는 지역 역사의 뿌리를 알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 정신을 찾아 경남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발간돼 왔다. 1963년 최초 발행 이후 3차례 발간됐고 이번이 네 번째다. 1988년 세 번째 도사 출간 이후 시대 변화를 반영한 도사 발간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김두관 전지사의 방침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도사 편찬에 착수했다.

그러나 2015년 국정교과서 논란 등의 여파로 책임감수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2016년 12월 감수를 앞두던 작업이 중단됐다. 이후에도 지역에서는

편찬 재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경남도는 2018년 12월 김지사의 방침에 따라 2019년 4월 '경상남도사 편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책임감수위원을 위촉해 감수 등을 거쳐 이날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도사는 1988년 이후 변화된 경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자연과 인물, 역사적 사실들까지 망라했다.

상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경남의 자연과 인물, 역사적 사실들을 시대사별로 종합해 5권으로 엮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분류사별로도 5권을 편찬해 총 10권으로 구성됐다. 경남도는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을 비롯해 분야별로 권위 있는 4명의 책임감수위원을 위촉해 내용에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했다. 역사적 인물을 추천받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사 편찬'이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의미 있는 의미를 담았다.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고대 역사를 다루는 제2권에서는 경남 지역 역사의 뿌리인 가야사 서술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문화사를 다루는 제8권에서는 시대별 선비문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주목받는 '남명사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또한 굴곡진 현대사를 헤쳐 오며 경남이 성취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도 심도 있게 고찰해 경남인의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했다. 경남도는 도사를 전자책 형태로도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미니도사와 웹툰,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역사·문화 콘텐츠로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미니도사를 활용해 학생

들이 경남의 정체성과 자랑스런 역사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지사는 도사에 실린 발간사를 통해 "기록은 내일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미래를 보는 창"이라며 "경남의 역사를 잘 기록하고 보존해 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히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경남을 만들어 가는 데 좋은 나침반"이 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명감으로 도사 편찬에 매진해 준 편찬위원과 집필위원 등 관계자들에게도 감사패를 전했다.

오영광기자

제21회 김해 건축대상제 대상

그린리모델링 '호텔 호피플라' 선정

제21회 김해 건축대상제 대상에 '호텔 호피플라'가 선정됐다. 김해시는 지난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접수된 신축 및 리모델링 건축물 총 6개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 우수, 장려 각 1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건축시공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9월 8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면으로 진행됐고 각 위원들은 건축물의 독창성, 경관성, 공공성, 친환경성 등을 평가했다.

대상을 수상한 '호텔 호피플라'는 생림면 인제로 611번길 16번지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한 건축물이다. 많은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높은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시켜 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에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장유동 율하배산길 7번지 단독주택 '트라이앵글 하우스'가 선정됐다.

삼각형의 대지에 역동적인 형태로 건물을 배치해 경관과의 조화와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동시에 이뤄낸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은 해광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반룡산 자락 해 좋은 집'이 수상했다. 관동동 323-1번지에 지어진 단독주택으로 대조를 이루는 외장재의 적절한 사용과 대지 조건에 맞는 공간 구성을 통해 지역 경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설계자와 시공자에게는 상장과 상패, 건축주에게는 상장과 건축물 부착용 기념현판이 수여된다. 문용주 도시디자인과장은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1997년에 제1회를 개최한 이후 해가 갈수록 김해시에 건립되는 건축물의 작품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낀다"며 "시민들이 건축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늘리겠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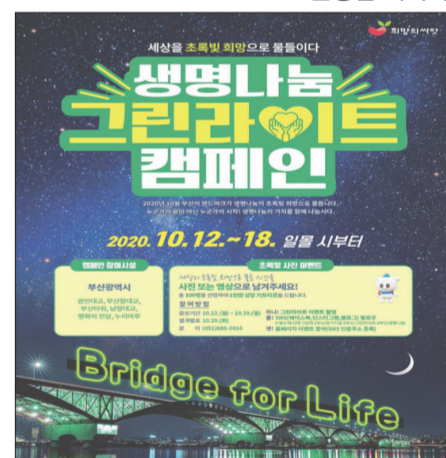
생명을 밝히는 '그린라이트 장기기증 캠페인' 개최

10월, 부산의 랜드마크가 초록빛 희망으로 물들다

부산시는 오는 18일까지 '세상을 초록빛 희망으로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생명을 밝히는 그린라이트 장기기증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를 비롯한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용두산공원 내 부산타워, 영하의전당, 누리마루에서 야간에 생명나눔을 상징하는 초록빛을 점등하는 캠페인이다. 이는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도 희망의 불빛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기간에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함께 장기기증 조례를 제정한 전국 지자체가 캠페인에 참여해 전국의 밤하늘을 초록빛으로 물들여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광안대교에는 생명의 나눔의 송고한 뜻을 되새기기 위해 장기기증을 실천한 박민규 군 박태순 님 박홍철 님 이기백 군 임태대 군 김충용 님을 미디어 파사드로 연출해 추모한다. 또한, 이번 캠페인 기간 '초록사진 올리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그린라이트가 밝혀진 사진을 촬영해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부산그린라이트,

#부산생명나눔, #부산장기증 해쉬태그를 올린 뒤 부산시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면 된다. 참여한 인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부산시는 생명나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장기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그린라이트 캠페인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생명나눔을 상징하는 초록빛이 부산의 랜드마크를 밝혀 시민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캠페인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명나눔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광남/대기자



허성무 창원시장 "현동유적, 해양 정치세력 교류관계 재조명"

창원시, 현동 가야유물 특별전시회 개막식 열어

창원시는 12일 오후 3시 창원시립 마산박물관에서 '가야의 또 다른 항구, 현동'이라는 주제로 현동 가야유물 특별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오세연 국립김해박물관장, 김구군 삼한문화재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환영사, 개회사, 축사, 전시회 해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창원시 의회의원 연구단체인 창원시 역사문화연구회 의원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이 많이 참석해 가야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했으며 그 당시 가야의 또 다른 항구로서 '탁동만'을 중심으로 한 가야의 여러 지역과 왜와의 교류관계 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전시장 해설 때 박물관 학예사에게 현동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의 보존상태, 함안 등 다양한 지

역의 가야 토기들이 출토된 배경에 관심을 보였고 체험행사인 배 모양 토기 및 낙타 모양 토기가 3D로 만들어진 과정과 입체퍼즐체험 등에 많은 질의도 했다. 현동유적에서 출토된 가야 유물 중 돛단배 형태의 배모양 토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최고 명품토기이다. 특별전시회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창원시립마산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창원시립마산박물관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전시회가 30여 년간의 진행됐던 현동유적의 발굴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당시 절 생산을 기반으로 했던 해양 정치세력의 교류관계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호기자





사이소

검색창에 '사이소'를 검색하세요

맛 좋은 빛깔 좋은 영양과
영양으로 만든 빛깔 좋은 고품질
검별 사이소에서 만나다

H.O.T

페스티벌

2020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영양 핫 페스티벌'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당해는 온라인 축제로 진행합니다

판매기간 9월 14일 ~ 10월 14일
판매처 사이소 www.cys.co.kr
문의전화 054-683-7300

김영록지사, “중소기업등 지원방안 최대한 강구”

중소기업중앙회 도지사 초청 정책간담회...현장 목소리 청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2일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전라남도지사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개최된 정책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관계기관장,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 중기제품 구매 확대,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 지원 확대 등 6건의 중소기업 정책현안을 건의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두 기관은 이날 또 전남 농식품의 소비촉진 및 공제회원 복지증진을 위한 전라남도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간 업무협약식도 갖고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에 따라 노란우산 공제회원은 남도장터에서 최대 5%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며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제회원들이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남도장터 이용방법 등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곳곳이 버텨준 여러분이 전남의 지역경제를 지켜온 주역이다”며 “오늘 제안해준 정책현안에 대해선 지원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장성군 ‘장성호 수변길’ 문 다시 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 경로당, 어린이집도 운영 재개

장성군이 지역 내 관광지를 다시 개방하고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로 인해, 정부가 민생경제 부양을 위해 방역지침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한 데 따른 조치다. 장성호 수변길을 비롯해 위라벨 돛경기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 군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은 12일부터 문을 열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운영은 사전 준비를 거쳐

13일부터 재개한다.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비롯한 각종 집합행사는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개최한다. 노래방 등 유흥시설 운영도 가능하다. 단 마스크 착용과 출입 전 발열 확인, 출입명부 작성, 타인과 거리두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는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 책임은 강화된다는 의미”며 “관광지, 시설 등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홍곤기자



유근기 곡성군수,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대상 수상

전남 곡성군 유근기 군수가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행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헌정대상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가 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헌정회는 1991년에 제정된 대한민국헌정회유성법에 따라 전현직 국회의원 3천여명이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이다.

이번 헌정대상은 현직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도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수호, 국리민복 증진, 국가 미래전략 활동, 국가인재 양성 등에 기여한 공적을 평가한 것이다. 시상식은 오는 14일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군민행복지수 1위 곡성’을 국정목표로 민

선 7기를 곡성군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시책으로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개 권역별 특화전략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잠재적 성장력을 높이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조성하고자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창의교육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군수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약 및 역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군민행복지수 1위 곡성의 초석을 단단하게 다져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남출기자



목포시, 블로그 공모전 개최 목포의 숨은 매력을 찾아주세요~

다음 달 7일까지 전자우편 접수, 11월 27일 수상작 발표

목포시는 낭만항구 목포의 숨은 매력을 찾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2020년 목포시 블로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내용은 목포의 관광지, 음식, 행사, 장소, 문화, 자연 등 나만 알고 있는 목포의 매력을 소개하는 글과 사진, 동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이 포함된 자유형식의 순수창작 블로그 콘텐츠로 누구나 공모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개인 블로그에 본인 이 직접 취재·제작한 콘텐츠를 사진 7장 이상, 동영상은 1분 이내로 게시하고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11월 7일까지 목포시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방법은 목포시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11월 27일 수상작을 발표하며 최우수 1명에 100만원, 우수 2명 각 50만원, 장려 10명 각 10만원과 시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SNS 채널을 비롯해 목포관광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목포의 숨은 관광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참신한 블로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2020년 목포시 블로그 공모전

“낭만항구 목포”의 숨은 매력을 찾아라!

공모주제
낭만항구, 목포의 숨은 매력을 찾아라!
(관광지, 음식, 행사, 장소, 문화, 자연 등)

나만 알고 있는 목포의 숨은 매력을 소개하는 콘텐츠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랠 목포 힐링 장소 소개 콘텐츠

접수기간
2020. 10. 8.(목) ~ 11. 7.(토) 24:00까지

공모자격
제한 없음 (누구나 참여 가능)

문의
☎ 061) 270-3613 홍보과 SNS 홍보팀 공모전 담당자

접수방법

1. 참가신청서와 목포시 공식 블로그 및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메일(mihjung1@korea.kr)로 제출
2. 이메일 제목 “2020년 목포시 블로그 공모전(본인이름)” 표기
3. 접수 기간 내에 본인 블로그에 직접 취재·제작한 콘텐츠를 포스팅 (사진 최소 7장 게시, 동영상은 1분 이내)

결과발표
2020. 11. 27.(금) 예정 • 시 공식 블로그 게재 및 개별통지

시상내역

최우수	1명	상금 100만원 및 상장
우수	2명	상금 각 50만원 및 상장
장려	10명	상금 각 10만원 및 상장

*포스팅 수순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명칭 상금이 조정될 수 있음

“장흥군 천관산 역사능선 안전하고 쾌적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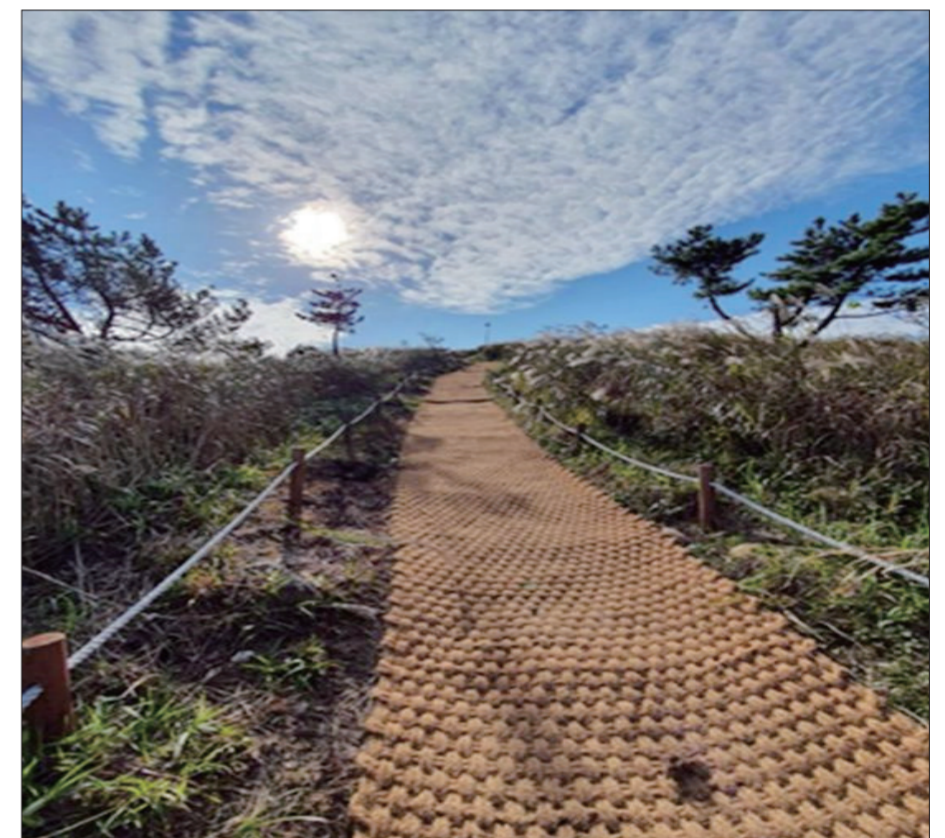
역사능선 노후 보행 매트 교체, 위험구간에 안전시설 설치

장흥군은 천관산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쾌적한 산행과 안전을 위해 역사능선 등산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탐방로 노후 시설을 보수하고 위험구간에 안전시설을 새로 설치했다.

환희대~연대봉 구간은 산죽의 무분별한 번식을 막고 역사 식생환경을 돕기 위해 벌제를 실시했으며 어린이 나무 가꾸기, 노후 된 보행매트 교체 등을 실시해 탐방객 맞이에 나섰다. 천관산은 가을철 역사와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고 다도해의 풍광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호남 5대 명산 중 하나로 손꼽힌다.

천주봉, 관음봉, 선재봉, 대세봉, 석선봉, 뚝대봉, 구룡봉, 갈대봉, 독성암, 아육탐 등 수십 개의 기암괴석과 기봉이 빼죽빼죽 솟아있는 모습이 주욱으로 장식된 천자의 면류관 같아 천관산으로 불린다. 천관산의 역사는 가을이여물어가는 9월 중순께 피기 시작해 10월 중순 장관을 이루고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5



시 이후에 태양을 안고 바라보아야 그 모습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정종순 군수는 “꾸준한 시설 보수와 역사능선 정비로 호남 5대

명산의 명성에 맞는 쾌적하고 안전한 천관산도립공원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장길기자

장성군 “새콤달콤 맛있는 ‘엘로우황금사과’ 납시오”

엘로우시티 장성의 대표 과일인 ‘엘로우황금사과’가 오는 14일부터 전국에 출하된다. 여는 사과와 달리 황금빛 겹질을 지닌 황금사과는 새콤달콤한 맛과 풍부한 과육을 자랑한다. 또 꺾어놓아도 쉽게 갈변이 일어나지 않으며 저장성도 뛰어나 6개월간 저온저장이 가능하다. 농가에도 이득을 준다. 황금사과는 잎따기, 반사필름 갈기, 착색제 도포 등 붉은색을 내기 위한 작업이 필요 없어 생산비용이 10% 가량 절감된다. 또 수

확도 향도 후지 품종의 중간 시기인 10월 상·중순에 할 수 있어 판로 확보가 용이하다. 황룡강에서 착안한 ‘엘로우시티 프로젝트’로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고 있는 장성군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황금사과 재배에 뛰어들었다. 황금사과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 30여 농가 12ha 규모로 재배단지를 조성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황금사과 수확에 들어간 장성군은 향후 장성 고유의 브랜드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

했다. 올해에는 ‘엘로우황금사과’라는 명칭으로 특허청 상표등록 출원을 마쳤다. 아울러 황금사과 재배단지 또한 2023년까지 40ha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특유의 황금빛과 우수한 식감을 지닌 ‘엘로우황금사과’가 소비자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화상태에 놓인 사과 유통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홍곤기자

순천시, 시민의식 가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동참 당부

순천시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지침 준수 계도기간을 11월 12일까지 운영한다. 순천시는 한 달간의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준수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과 대상 장소는 집합 제한시설,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이며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

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과 만14세 미만, 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종류로는 KF94, KF80, KF-AD,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 허용되며 방사형 마스크, 벨트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은 우선 손을 잘 씻고 마스크로 코와 턱을 감싸고 끈을 귀

에 걸어 고정시킨 후 고정심이 코에 밀착되도록 누른다. 사용 후 벗을 때는 마스크 겹면이 손에 닿으면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으니 끈을 잡고 벗는 것이 좋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8월 확진자 57명에서 10일 만에 확진자 0명을 기록한 것은 순천시민의 자발적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다시 한 번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방역수칙 준수 동참에 적극 협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전북도, 농산물산지유통 혁신조직 공모사업 최다 선정

도내 4개소 선정으로 유통분야 전국 최우수 면모

전라북도는 '21년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조직 공모사업'에 전국 최다인 4개소가 선정되며 농산물 유통 관련 국비사업 확보에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조직'은 여러 품목을 취급해 오던 기존의 통합 마케팅에서 한발 더 나아가 품목을 전문화하고 생산과 마케팅을 계열화함으로써 향후 수급관리를 통한 가격 조정까지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향후 농산물 산지유통의 방향성을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조직 육성'으로 보고 지난 9월부터 공모를 통해 시범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농산물을 연 100억원 이상 취급하고 전문 취급 품목

의 판매비중이 50%를 넘어야 신청할 수 있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 본 사업에 선정된 조직은 통합마케팅 분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공모는 전국에서 25개소가 신청해 15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전북은 전주·남원시 조합 공동사업법인과 ㈜농산, 부안마케팅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소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들 조직은 '21년도에 각각 3억원의 농산물마케팅비를 지원받으며 농산물 유통 관련 국비사업 우선 배정, 산지유통종합평가 면제, 종합자금 우선 배정 등의 특전을 받는다. 전북도는 이번 성과를 기간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농산물 통합마케팅 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는 지난 6월 '2020년 원예산업 종합계획 이행 실적 연차평가'에서 공선출하회 확대 등의 지표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최우수기관으

로 선정됐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21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공모사업'에 고창군이 국비 20억원을, 발자불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공모사업에서 부안조공법인이 5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전북 통합마케팅의 위상을 높였다. 이번에 농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한 '20년 산지유통 조직 운영 실적 평가'에서는 김제에 소재한 ㈜농산이 광역조직 1위, 전주조공법인이 연합조직 2위를 차지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산물 산지유통혁신 조직 선정은 전북도가 산지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자조직 육성 강화와 통합마케팅조직 원예농산물 취급액 확대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며 앞으로도 "도정 핵심정책인 삼락농정을 활기차게 펼쳐 농가의 수취가 제고를 통한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화순군, 청춘 문화살롱 통해 청년에게 활력 충전

화순군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적 활동을 도모하고 청년공동체 문화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화순군 청춘 문화살롱'을 운영하고 있다.

화순군 청춘 문화살롱은 2019년 화순군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강의와 체험 활동으로 6차례 운영한다. 청춘 문화살롱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12월 10일 퍼스널 컬러 찾기, 핸드드립 커피 체험을 통한 심신의 피로 풀기, 호감을 주는 대화 기법, 가족지갑 공예를 통한 자아성취 도달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 8일에는 '핸드드립 커피 체험을 통한 심신의 피로 풀기'를 주제로 코로나19로 지친 청년들에게 진한 커피향을 전했다.



이날 정경옥 강사는 커피의 유래, 좋은 커피 고르는 법, 케냐에서 직수입한 무농약 생두를 이용한 로스팅 과정, 그라인더 사용 방법, 핸드드립 요령 등을 강의하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 수강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나19로 지친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2021년에 청년센터가 개소되면 '화순군 청춘 문화살롱'이 청년들의 소통과 문화 창구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임실군, 자전거 타기 가장 안전한 곳 '전국 2위'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교통안전지수 조사결과, A등급 전국 두번째

임실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자전거 타기에 가장 안전한 지역 2위를 차지했다.

군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의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지수' 조사 결과 임실군의 자전거 교통안전지수는 강원도 정선에 이어 전국 2위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5위에서 2018년 3위를 차지한 데 이어 가장 높게 평가된 결과다.

교통안전지수는 각 지자체의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건 수와 사상자수를 기초로 인구수와 도로연장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성이 높다. 이 지수는 지자체의보다 적극적인 교통안전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나아가 국가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임실군의 경우 자전거 및 이륜차 교통안전지수에서 84.62로 A등급으로 평가, 자전거 타기 좋은 교통여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임실군은 전남 광양까지 이어지는 섬진강 자전거길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섬진강과 기암괴석이 어울려 만들어진 빼어난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으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손꼽아 찾는 아름다운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섬진강 국가하



천 자전거도로도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섬진강 국가하천 내 자전거도로 12.17km를 대상으로 노면 포장, 배수시설, 안전표지판, 데크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수공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 내년도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또 옥정호 붕어섬을 잇는 출렁다리와 짙라인 등이 설치되면,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옥정호 주변도로 일대에 자

전거길 조성을 검토 중이다. 심민군수는 "임실군이 자전거를 타기에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꼽힌 만큼 자전거 도로 정비에 더욱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이라며 "자전거길 유지관리에 안전을 기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탐방객과 라이딩 동호인 등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자전거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비대면 시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숲 체험

광산군, '유아숲 페스티벌' 참가 가족 모집...100가족에 '숲 꾸러미' 준다

광산군이 시민의 코로나19 우울증 극복 등을 위해 자연 활동을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언택트 스타일로 유아숲 페스티벌'을 예고하고 참가 가족을 모집한다.

5회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은, 유아숲체험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숲 꾸러미'를 유아기 있는 가족에게 제공해 각 가정에서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6~7세 유아기 있는 가족이 페스티벌 참가를 신청하면, 광산군이 숲 꾸러미를 선착순 100가족에 지급한다. 참가 신청은 19일부터 광산군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받는다.

김덕윤/기자

숲 꾸러미에는 솔방울·열매 등 캔버스 꾸미기와 화관 만들기 재료들과 함께 체험 활동 설명서가 들어있다. 광산군은 참가 가족들이 가정에서 자연 재료로 저마다의 완성품을 만들며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꾸러미 내용물을 구성했다.

참가 가족으로 선정되면 숲 꾸러미를 경매·생태·무양·원당산 유아숲체험원에서 받아 가면 된다.

나아가 체험 후기 사진을 안내에 따라 등록하면, 광산군이 참가 기념품으로 사진 인쇄 손수건을 증정한다. 광산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숲 꾸러미로 체험하며 풀기 바란다"며 "가족이 함께 만든 작품을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광산군이 돕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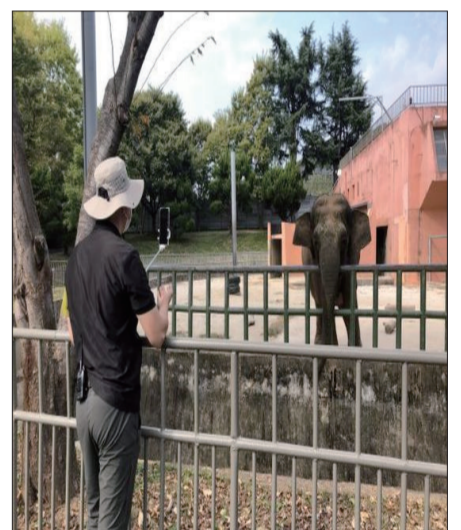


전주동물원, 동물 관람 라이브 중계

전주동물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동물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라이브 방송을 실시했다. 전주동물원은 12일 인스타그램 전주동물원 공식 계정을 통해 사육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동물도 관람해볼 수 있는 방송을 생중계로 진행했다. 현재 동물원은 지난 8월 2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장 중인 상태로 이번 라이브 방송으로 휴장 중 전하지 못했던 동물원 이야기와 생태동물원의 현재 모습 등이 생생하게 소개됐다. 특히 방송 참여자

들은 사육사와 함께 동물원 관람코스를 탐방해보며 평소 사육사와 동물원에 대해 궁금했던 점에 대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처음으로 실시한 비대면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동물을 관람하며 마음을 달래보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주동물원은 생태동물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은 물론 동물들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기자



의정부역 스카이 자이

옥천군, 45회 중봉총렬제 개최

10월 15~16일 추모제향, 학술세미나 등 간소화 추진

‘45회 중봉총렬제’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안남면 표충사와 옥천 관성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1976년 처음으로 열린 중봉총렬제는 임진왜란 당시 왜인에 맞서 싸우고 장렬하게 순절하신 의병장 중봉 조헌 선생과 의승장 기허당 영규 대사의 살신·호국 정신을 추모하기 위해 옥천군과 옥천문화원이 매년 개최하며 그들의 충과 의를 되새기고 있다. 올해 45회 중봉총렬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소 인원 참석 하에 간소화해 추진한다.

기존 문화원 문화교실 회원전 등 각종 전시회, 중봉유적순례, 읍북회 등의 연계행사를 취소하고 중봉 조헌선생 추모제향, 팔백의승과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제향, 중봉 조헌 학술세미나만 진행해 중봉총렬제의 의미를 이어가고 호국정신을 재조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봉 조헌선생

추모제향은 15일 오전 9시 30분에 안남면 도농리 표충사에서 거행되며 옥천청년회의소 주관 하에 관계기관 및 종중 등 30명 이내만 참석한다.

15일 오후 2시에는 중봉 학술세미나가 관성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며 중봉 조헌선생 선왕회 이사장 이하준 이·조선이 낳은 큰 인물 중봉 조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날 강연에는 김중구 충북도립대학 교수와 전순표 옥천향토사연구회 회장이 토론 패널로 참석한다.

이 날 세미나는 10명 미만의 소수 인원이 참석하며 영상 촬영해 유튜브에 게시한다.

이어 16일 오후 2시에는 옥천불교사업연합회의 주관으로 관성회관 대강당에서 팔백의승과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제향이 열리며 영규대사를 비롯한 이름 없는 의·승병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한다. 김재중 옥천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중봉 조헌 선생과 영



구대사의 호국정신을 추모하고 계승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했던 그의 뜻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어 지

‘올’바른 걷기 동아리 운영에 박차

마음 같이 몸은 따로 지금은 딱 걷기 좋은 계절

당진시 송악건강생활지원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육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건강걷기 동아리 운영으로 주민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바른 걷기 동아리 운영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10월 6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했고 동아리 활동은 10월 12일부터 약 3개월 간 ‘걷주’ 앱 송악건강증진센터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본격 운영 된다.

센터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 속 걷기 운동을 확산하고 건강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걷기 참여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맞춤형 건강 상담 및 건강측정을 제공하고 둘째, 손목형 스마트 밴드를 걷기 종료 시 까지 대여해 주간 5만보 및 월간 걷기왕에게 모바일 기프트콘을 증정해 연말까지 포기하지 않고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한다. 셋째, 네이비 밴드를 통한 영양 및 보건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에도 자가 건강관리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송악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걷기 동아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조치원전통시장, 사진으로 옛 추억 나눠요

11월 7~8일 250주년 기념행사...13일부터 사진공모전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조치원전통시장 25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사진공모전 ‘조치원시장 옛 추억을 품다’를 연다. 조치원시장은 1770년 동국문헌비고 향시편에 ‘청주목 조치원장은 4·9일 열린다’라고 기록된 이후 250년 간 상업유통 중심지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세종 조치원전통시장 250주년 기념행사’를 주민 주도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8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비대면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조치원전통시장 250년 역사를 조명하는 영상물을 제작, 온·오프라인으로 송출할 예정이며 전통시장 홍보와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시장 내 단골 가게 또는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은 후 SNS에 공유·전송하거나, 물건 구매 후 카드·현금 영수증을 상인회에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등 경품을 시상한다.

특히 시는 조치원전통시장 250년의 역사와 기념행사 개최를 홍보하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조치원시장·조치원을 등 옛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모한다. 조치원시장과 조치원을 등 옛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시민은 시청 기업지원과 또는 세종전통시장 조치원상인회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 중 70점을 선정해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선정작은 기념행사 기간 중 조치원시장 중앙동로에 전시된다.

김희산 기업지원과장은 “세종 조치원전통시장은 세종시의 역사와 시민의 삶을 간직한 추억의 공간”이라며 “이번 행사는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인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주제 조치원시장 및 조치원을 담은 사진 (세종시·충청남도·충청북도)

철원평생학습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철원가족만을 위한 비대면 평생교육 가족소통 공감 콘서트

철원군이 비대면으로 평생학습을 진행한다.

철원군은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 각 가정에서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줌을 활용한 ‘철원평생학습 비대면 가족소통 공감 콘서트’를 진행한다. 철원군 유튜브 채널인 ‘철원TV+cheorwon’로 생중계된다.

인기 유튜브 그룹 ‘웃소’와 함께하는 마스크스트랩 만들기 및 철원 오대쌀 떡케익 만들기가 진행된다.

드라이브 스루로 체험키트가 무료로 제공된다.

웃소는 대한민국 유튜브채널이며 2019년 포브스 코리아에서 파워 유튜버로 선정됐다.

온라인 제작자들의 놀이터를 표방하며 함께 재밌는 콘텐츠를 만드는 웃음코백소의 출입말이다.

대상은 5세 이상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철원가족 70가정이다.

e-한눈에 철원군 평생학습홈페이지에서 10월13일 오전9시부터 온라인 신청서로 채널인 접수한다.

철원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온라인 평생교육을 추진한다”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김장용 배추, 무 병해 및 양분관리 현장컨설팅 추진



고품질 배추, 무 생산을 위해 적기 추비주기, 병해충 관리 중요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김장용 배추, 무 병해 및 양분관리를 위한 현장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당진 지역 8월말부터 현재까지 평균기온은 평년대비 0.1°C 높았고 강수량은 142.4mm 많았다. 하지만 강우가 9월중 정식초기에 집중돼 배추, 무 결구율은 5% 안팎이나 현재까지 생육상황은 전년 대비 좋으며 병해충 및 수확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 배추 양분관리는 무의 경우 웃거름을 2회 정도 나누어 주며 1회는 파종 후 20일에 포기사이에서 주고 2회는 1회 후 15일에 이랑아래 부위에 준다. 배추는 정식 후 15일간격으로 3~4회에 걸쳐 요소와 염화칼륨을 웃거름으로 주어야 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포기 작이 잘 자라지 않는다. 또한 정식 후 40일 이후인 결구초기에는 칼슘결핍 등 생리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 염화칼슘 0.3% 액을 5일간격 옆에 뿌려주는 것이 좋으며 이 시기에는 수분이 가장 많

김원호기자

서산시, 국토교통부 주관 건축행정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충남 유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2연속 수상 충남 건축행정 1위 입지군건

서산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0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광역 지자체별 1개의 기초지자체만 선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되며 도 내 건축행정 1위라는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적절성, 전문성 등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전국 243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시는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6개 항목 32개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특히 건축 인허가 처리 만족도,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해 2년 연속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국토부 건축행정 평가 우수 기초자치단체 수상은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며 “충남 유일의 투명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고양시,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코로나19 속 빛난 고양시 인권 행정'호평

이재준 고양시장,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전체회의에서 기초지자체 대표에 연설

이재준 고양시장이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세 번째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와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향한 고양시의 도전'을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전체회의3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와 인권과제'.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속에서'안심 카선별진료소 전국 최초 도입'등 지방정부로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 기초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전체회의의 발제자로 초청받았다.이재준 고양시장은 발표에서 "이번 위기 속에서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춘 지방정부의 진가가 드러났으며 동시에 권한과 재정의 한계도 확인됐다"며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간 수평적 협력을 토대로 견고한 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설을 끝맺었다.이에 대해 베르나디아 잔드라데우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사무총장은 "인권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며, 고양시 사례는 지방정부의 모범적 대응을 가장 잘 보여준다"며 호평했다.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광역시, 유엔, 유네스코,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노르웨이 베르겐 시장, 프랑스 그리니 시장 등 해외 도시 시장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세계적인 인권 포럼에서 큰 주목을 받은 고양시의 인권행정 행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양시, 코로나19 위기 속 방역과 인권의 균형잡기 - 안심카, 안심콜, 립마스크 등 인권 고려한 방역 정책 돋보여 코로나19 위기는 '안정'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부각시켰다.코로나19로 삶의 안정이 무너지자 취약계층이 사각지대로 몰리고 소수자 혐오가 만발하는 등 인권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이런 가운데 고양시는 빠른 검사가 가능한 가온데비스루형'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선봉장 역할을 했다.고양시의 '안심콜 정보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침해와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방문자가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기록이 서버에 저장되고 정보는 4주 후 삭제되는데, 정확한 입묘양을 볼 수 있는 마스크도 비치했다.마스크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착용한다.코로나19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도 펼쳤다.식점 등의 옥외영

업을 허용해 매출 회복에 도움을 줬고 영업을 중단된 고위험시설 업소에 지급하는 특별휴업지원금도 정부보다 앞서 발표했다.무대 기회를 잃은 공연 예술인을 위해 고양예술은행을 운영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 6천 개를 마련했다.코로나19로 삶의 기반이 무너진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한 것이다.고양시, 지속가능한 인권 도시 위해 기틀부터 탄탄히 - 인권기본계획, 인권영향평가, 인권문화사업 등 인권 행정에 속도 내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의 화두는 '인권의 지역화'였다.코로나19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강타하면서 이들과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인권의 지역화를 위해서는 인권 조례 제정, 인권 전담부서 설치, 인권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인권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현황 연구'에 따르면 22개 기초지자체 중 인권 조례를 제정한 곳은 95곳,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36곳, 인권 전담부서는 17개에 불과하며 인권영향평가는 단 7개 지자체만이 시행했다.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인권의 공백을 메워야 할 기초지자체가 인권 정책의 불모지인 셈이다.고양시는 인권 기틀을 탄탄히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13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인권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2019년에는 모든 직제 중 가장 우선해 인권과 평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증진위원회와 함께 연 10회 가까이 회의를 진행하며 인권 행정의 중심을 세우고 있다.인권 행정의 로드맵이 되는 인권기본계획은 2015년에 1차 수립했다.올해 2차 계획을 수립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 인권을 확보하고 고양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인권행정 체계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담아 11월 말경 완성 될 예정이다.고양시 행정에 인권 침해 요소가 없는지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된다.올해는 장애인분야 자치법 외에도 지역사회에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인권문화사업도 진행 하고 있다.2019년에는 인권영화제, 인권문화제, 인권교육을 진행 해 시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올해는 코로나19로 문화행사 대신 인권작품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총 340여편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33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선정작들은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12월 7일부터 열을 간 고양시청 본관 지하 맞닿지 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시민의 기본권과 인권



가치, 정책으로 녹여내는 고양시 - 아파트경비원인권조례, 한시적 양육비 지원조례 등 인권 정책 구체화 고양시는 세심한 인권정책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이다.고양시는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태와 관련, 경비원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법으로 보장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휴게실·편의시설·냉난방 설비 등 시설개선을 통한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78.8%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고양시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이외에도 시는 점자인원 업무안내 책자 배포, 장애인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버스승강장 장애인 휠체어표시사업, 공공청사 휠체어 경사로 확보 등 일상 속 놓치기 쉬운 인권사각지대를 발굴 및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조혜욱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등 위기에서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삶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리적·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양시 모든 정책에 안전과 인권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재준 고양 시장은 "고양시는 '사람 중심 도시'답게 인권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회적 약자에 귀 기울여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인권기본계획·인권영향평가 등 인권행정 기틀을 탄탄히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근/기자

옥천군, 청년 농산업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옥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주최한 청년 농산업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옥천군청년농업인 4-H회 부회장인 박준우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농촌진흥청의 미래 농업 청년 인재 양성 발굴의 일환으로 신기술 융합, 정보통신 기술활용, 벤처 창업, 가공·관광 등 4개 분야에 농산업 창업에 대한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이 대회는 지난 9월 24일 전북 완주 소재 스페이스북의 전북혁신본청에서 서류심사를 합격한 12팀이 참가해 농업분야 우수 창업 아이디어와 사례를 발표하며 경쟁을 펼쳤다.

이 날 박준우 대표는'파치 농산물 활용 솔루션, 모두의 초코볼'이라는 주제로 옥천군에서 발생하는 파치 농산물을 활용해 가공한 초코볼을 선보여 농업 소득 창출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심사위원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히푸드·라히팜은 옥천을 가공리 소재 사업장에서 옥천산 농산물을 원재료로 이용해 아로니아 초코볼외에도 기능성 당액 비타민이 코팅된 딸기칩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농가공 업체이다. 박준우 대표는"매년 발생하는 파치 농산물을 활용하기 위해 고안해 낸 기능성 초코볼이 경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 피해 감소를 위해 버려지는 농산물 파치를 활용하여 가공품을 상품화 시키는데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괴산군에서 최고 농업연구직 공무원 배출 접경사

괴산군 괴산읍 시골마을, 올 한해 국가직 1급 공무원, 기술사 3관왕 잇따라 배출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이장 김종호)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농업연구직 공무원이 잇따라 배출돼 화제다.지난 1월에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두호 원장(국가직 1급)이 부임했고 이어 6월에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박의광 팀장이 종자기술사에 최종 합격하며 농작물분야 기술사 3종을 모두 취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 원장은 동인초(11회), 괴산중(26회), 청주 세광고와 충북대학교를 졸업한 후 1986년 농촌진흥청 근무를 시작했다.이후 수많은 연구 업무를 통해 대통령 표창을 두 차례나 수상하며 국립식량과학원장을 거쳐 국립농업과학원장이라는 최고 연구직 공무원의 자리에 올랐다. 박의광 팀장은 동인초(25회), 괴산중(40회), 충북고와 충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연구직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연구 와인 품질관리 연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특허출원, 학술발표 등을 이어온 베테랑이다. 특히 박 팀장은 주경야독으로 2017년 농화학기술사, 2018년 시설원예기술사, 2020년 종자기술사를 취득하며 농작물분야 기술사 3종을 모두 취득했다.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 등급체계에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위의 등급으로 최고 자격을 말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춰야 취득할 수 있어 한 해 통상 5명 안팎의 합격자가 나오곤 한다.김종호 대사리 이장은 "이렇게 작은 시골마을에서 최고의 농업전문가를 한 해에 2명이나 배출한 것은 이제껏 없던 일"이라며 "매우 경사스러운 한 해로 마을 주민들 모두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했다.이민표 괴산읍장은 "괴산군에서 인재들이 배출됐다는 소식은 주민들 모두의 경사"며 "앞으로도 의지와 능력이 있는 지역의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괴산읍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STICKER

네임스티커&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남원 출신 가수 강혜원 향토색 베어있는 “정령치고개” 신곡 발표

남원 춘향고을에 혜성처럼 떠오르는 신인가수가 있다. 그는 바로 가수 강혜원이다.

4년간 노래봉사(재능기부)를 하고 1집 앨범을 발매한지 2년만에 2집 앨범 발매하고 연이어 3집 앨범을 발매하며 주옥같은 신곡 서은미 작사, 작곡(정령치고개, 멋진사람, 바람같은 당신) 세곡을 동시에 발표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본인곡 일곱곡중에 가장 애착이가는 곡이라면 단연 남원을 떠오르게 하는 “정령치고개” 라는 곡이다.

가수 강혜원씨는 남원에서 행사나 축제를 다니면 현장에서 남원을 그리워하고 남원의 향수를 느낄수 있는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이 자주 들어와 남원을 홍보할수 있는 노래를 간절히 원했던터라 이 노래를 제작하였는데 남원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운 미모와 아름다운미소, 뛰어난 노래실력까지 고루 갖춘 가수 강혜원씨의 앞날이 주목된다.

가수 강혜원씨는 “정령치고개”를 통해 남원이 더욱 알려지고, 코로나 19로 인해 시름에 빠졌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령치고개〉 돌이 놀던 광한루원/그리워서 넘어왔소/오작교 노는 잉어/보고싶어 넘어왔소님 보내고 아쉬워하며/님 그리워 너는 고개/사랑 찾아 행복찾아 /다시왔소 정령치고개/님 보내고 님 그리는/사랑고개 정령치고개 이남출/기자

2020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온오프 놀이터로 운영

14일부터 18일까지 ACC 등 23곳...23개국 102명 작가 참여

광주광역시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2020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온오프 미디어아트 놀이터프로젝트로 추진한다.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놀이터프로젝트 개념을 도입해 미디어아트에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융합하고 기존 문화예술행사와 연계해 하나의 프로그램 속에서 시민들과 예술인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한다. 주제는 ‘광주의 빛 - 빛과 공존의 미학’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과 광주시 일원에서 다양한 연계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먼저 지난 6일부터는 미디어아트 투어전, 루키전, 대학생 공모전 등이 시작됐으며 14일에는 본전시, 국제교류전, 특별전 등이 오픈된다.

또 본 행사에 앞서 14일 오후 7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 서막행사는 ‘광주의 빛’을 주제로 열리는 이용섭 시장의 영상메시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공연 온라인 중계 등이 진행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위안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펼쳐지는 본 전시에는 지역을 포용한 국내 유명 미디어아티스트 13명의 다양한 작품들이 가을밤 도시를 은은하게 밝히며 공존하는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관계와 삶의 조건에 대해 고찰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

당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진행되는 국제교류전에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대표하는 13개국 13개 도시의 작가들이 참여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간의 끈끈한 빛의 벨트를 구현하는 ‘공존의 노래’를 완성한다. 옛 전남도청 정면부 외벽에 투사되는 특별전-미디어파사드는 ‘광주의 빛’을 주제로 마련됐다.

옛 전남도청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살아있는 현장이며 광주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특별전에서는 광주와 국내를 대표하는 미디어아티스트들의 작품이 건물의 외벽에 투사돼 특별한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미국 등 11개국 작가가 참여하는 미디어아트 투어전 등은 9개의 미술관과 7개 대안공간, 예술의 거리, 대인예술시장, 아트광주, 아트피크닉, GSAF광주소셜아트페스티벌과 연계해 운영된다. 또 전국 공모로 진행되는 청년작가 루키전과 차세대 미디어아티스트를 발굴하는 대학생 공모전이 이번 페스티벌에서 처음으로 선보여진다. 이번 프로젝트는 당초 빛고를 광주를 문화관광형 체류 도시로 선도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메인 광장축제와 어린이 놀이터, 퍼레이드 등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행사 내용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관람은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가능하다.



광주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하는 협력형 문화사업으로 광주지역 23곳 문화예술공간이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이자 광주의 미래적 문화정책을 상징하는 인공지능, 실감콘텐츠 등 첨단기술을 연결한 미디어아트 가능성을 시민과 공감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시민들이 국내외 미디어아트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해 전시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예술의전당, “군산시립교향악단 제61회 특별기획연주회” “클래식, 젊음을 만나다” 공연 추진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5일 저녁 7시 제 61회 특별기획연주회 ‘클래식, 젊음을 만나다’ 무관중 녹화공연으로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청소년 연주자들이 군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을 통해 무대 경험을 쌓고 재능 있는 청소년 예술인을 발굴·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은 지난 8월 우수 음악인재 발굴 오디션을 통해 솔로 6명의 젊은 음악인들을 선발했으며 청소년 연주자들과 함께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눈높이 클래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날 공연은 군산시립교향악단 백정현 지휘자의 지휘로 김채원, 김경호, 정경화, 김나이, 문경아, 공민준이 협연을 펼친다. 이번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되기 전에 기획된 공연으로 무관중 녹화중계되며 kcn을 통해 10.21~10.27일까지 채널 5번에서 송출 될 예정이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이번 연주회는 미래의 음악가를 꿈꾸는 청소년 연주자들의 꿈을 응원하는 귀한 자리”며 “군산시립교향악단과 청소년 연주자

들의 멋진 협연을 통해 더욱 더 성장하는 예술가로 자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Poster for 'Classical Music, Meet Youth' concert featuring young musicians and orchestra members.

옥천문화예술회관, 명품마당놀이, ‘신뺨파전’ 공연

옥천군은 오는 14일 오후 7시 옥천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2020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선정작 ‘명품마당놀이-신뺨파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신뺨파전’은 판소리 다섯 마당 중 심청가의 일부분으로 통쾌한 풍자와 절절한 해학으로 서민들의 울분을 달래주고 신명을 풀어내는 마당놀이로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창들과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해,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세상은 이야기를 명창들이 풍자와 해학으로 입담을 더하고 민요·사투리·트로트 등의 연극적 요소를 가미해 새로운 웃음과 감동을 주는 웃음 한마당으로 구성됐다. 문화관광과 황수섭 과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지난 여름 긴 장마로 인해 지친 우리 군민들의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만큼 좀 더 다양한 공연으로 군민들의 문화적 감성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사전 전화 예매한 군민 70명만 입장해 공연장 내 마스크 착용, 좌석간 거리두기, 2m 이상 간격 유지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하며 관람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영상 촬영 후 옥천군 유튜브에 송출 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for 'Shinpyeonpa-jeon' performance featuring a list of performers and showtimes.

최만식/기자

전라감영 첫 전주대사습놀이 대통령상 김병혜씨

‘제46회 전주대사습놀이, 전라감영서 울려 퍼져’

70년 만에 복원된 전라감영에서 처음으로 열린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영예의 판소리명창부 장원은 김병혜 씨가 차지했다.

김병혜 씨는 12일 열린 ‘제46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명창부 경연에서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을 열창해 장원으로 선정돼 대통령상과 함께 국악계 최고 상금인 5000만원을 받았다.

이번 ‘제46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및 제38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예년과는 달리 지난달 6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약 1달간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열린 경연이 펼쳐졌다. 학생전국대회 예선전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 심사로 실시됐으며 일반전국대회 예선전은 소리문화관, 천양정,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향교, 전라감영 등 여러 장소에서 분산돼 무관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전주 MBC 생방송으로 생중계된 본선에서는 판소리명창부 김병혜 씨를 비롯해 각 부문별 장원자가 배출됐다. 부문별 장원자에게는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전라북도지사상 전주시장상 문화방송사장상이 수여됐다. 국악계 명인·명창과 전주대사습놀이 역대 장원들이 개막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대회는 다채로운 기획공연이 장기간 펼쳐져

깊이 있는 축제의 장이 됐다. 특히 올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지난 7일 전라감영 준공 기념식 이후 열린 첫 행사여서 눈길을 끈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모태가 조선 후기 전라감영 통인청과 전주부성 통인청에서 펼쳐졌던 판소리 경연이었기 때문이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무관객 속에 펼쳐진 올해 대회는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가진 전라감영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대사습놀이를 국악분야 최고 등용문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마산오광대 산청문예회관서 비대면 온라인 공연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산청군은 ‘2020년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하나로 마산오광대 공연을 비대면 온라인 송출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 8월 오후 5시 산청문화예술회관에서 경남도내 우수예술단체인 마산오광대보존회의 공연을 비대면 촬영해 유튜브를 통해 송출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무관중 온라인 송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모든 연령층이 관람 가능하며 유튜브에서 ‘마산오광대’를 검색하면 관람할 수 있다. 마산오광대는 1900년 경 놀이에 능한 주민 김순일 등이 마산 장터에 노는 것을 보고 배워 시작해 통영오광대 및 고성오광대로 전승한 경남지역 가면극 중 하나다. 사지춤, 버나 및 죽방울 돌리기 등을 포함해



전체가 7과장으로 구성돼 있다. 2016년부터 우수예술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선정돼 매년 도내순회 공연을 하고 있는 마산오광대보존회는 2018년 부산국립국악원 영남

춤축제, 2019년 경남민속경연대회, 2020년 창원시립마산박물관 ‘달놀이’ 전시 행사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남궁영/기자

2020년 을 사업 점검, 국가예산 확보 및 사업 발굴 '총력'

이환주 남원시장 10월 부서장과 함께하는 날서...



이환주 남원시장이 12일 '부서장과 함께하는 날'에서 연초 계획업무 점검 및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10월이 되면서 올해도 4/4분기에 접어들고 있다. 을 사업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들에 대해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추진 상황 등을 철저히 점검하자"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남원시는 '국가예산 확보'가 큰 힘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지금 좁아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시기다. 국회 예산 심의에 의결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 시장은 2022년 사업발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최근 시에서 여러 차례 발굴 보고회도 가지며 사업 등을 발굴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사업, 디지털 뉴딜 등 정책에 대한 사업 발굴이 매우 필요하다"며 "발굴 단계부터 정책 흐름을 잘 파악, 논의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실행

가능한 방안 등을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정기적으로 도출되는 안건 말고 시민들께 필요한 새로운 기획안, 현안 사업 등을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국가예산 확보 및 사업발굴 업무지시 사항 외에도, 가을철 재해, 재난 대비 및 환경정비 업무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계절변화에 따라 가을철 산불예방 방지대책, 겨울철 설해대책도 신경 써야 한다"며 "사전 점검 및 철저한 대비로 만약의 재해, 재난 사태 등을 막자"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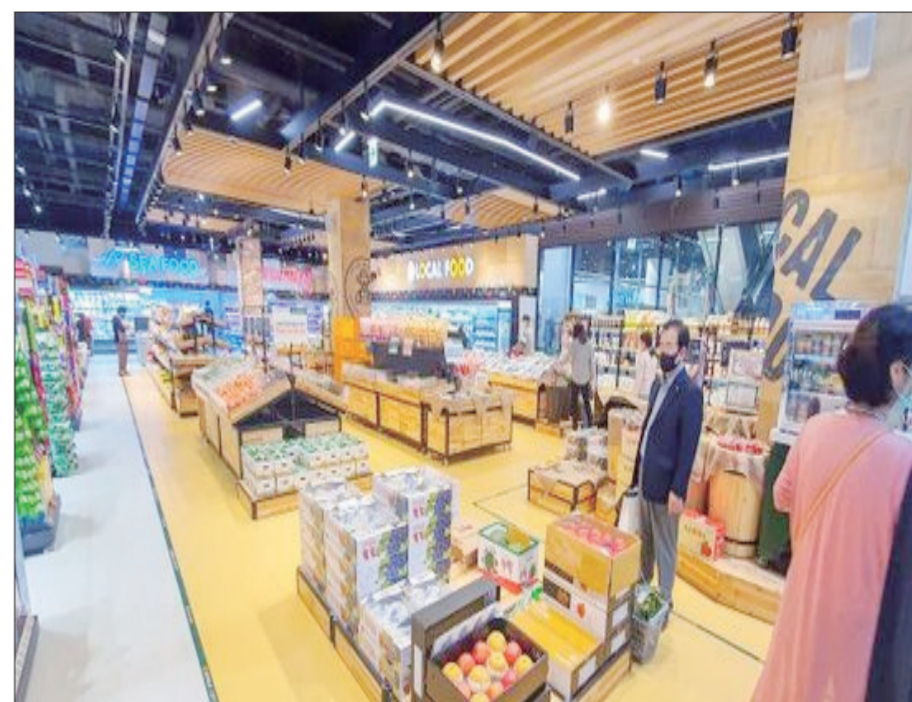
이어 이 시장은 곧 단풍철을 맞이하는 점을 언급하며 "많은 관광객들이 지리산과 남원을 방문함을 대비하는 점을 고려, 주변 관광시설물,

진입로 화장실, 각종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업무지시와, 수해 복구와 관련 업무지시도 전달했다. 이 시장은 부서장들에게 "시민들의 협조와, 남원시의 행정력으로 그동안 우리 남원은 정정 남원을 잘 유지해왔지만,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여러 실과와 부서에서 끝까지 협력해 청정남원을 유지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수해복구 관련해서는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도 수해민들이 계시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협조는 물론, 특히 복구가 지연되지 못한 곳에 대해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남해군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날개 달았다

'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 및 '2021 직매장지원 사업' 선정 44억 확보



남해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남해군은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44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창선면과 남해읍에 각각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할 수 있게 됐다. 13일 밝혔다. 남해군은 올해 농림부와 경남도가 주관한 공모사업인 '2021년 직매장 지원 사업'과 '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국·도비 18억 400만원, 군비 17억 1600만원, 축협 자부담 8억 80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의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는 창선면 소재 동대만휴게소와 남해읍 소재 가축시장에 각각 들어서게 되며 남해군먹거리생산자연연합회와 보물섬 남해한우연구회 등이 대표 로컬푸드 공급 농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는 농축수산물 생산과 가공은 물론 외식산업 활성화와 문화창작 활동까지도 도모하는 농촌융복합 시설로 궁극적으로는 남해형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향후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로컬푸드를 이용한 농가

레스토랑 운영 농축수산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유명 스타셰프와 함께하는 남해 로컬푸드 미식회 개최 로컬푸드 이용 레시피 개발을 통한 남해형 식도락 문화 형성 도립남해대학교와 연계한 청년문화아이템 발굴 및 동아리 지원사업 마늘 & 한우축제·고사리축제·독일마을 맥주축제·멸치축제 등 계절별 축제와 연계한 계절상품으로 구성된 특산물 등이 추진된다. 남해군은 2021년 6월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 착공에 들어가서 2022년 11월경 준공할 예정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현재 건립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가공센터와의 연계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제공함으로써 농산물을 제값에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태안군, '신해양도시' 도약 위한 '광개토 대사업' 주력 추진

이원-대산 간 연륙교 건설 등 '광개토 대사업' 지속 추진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지역발전 주춧돌 놓을 것

'활활해관 해양경제의 중심축 신해양도시 태안으로 더 큰 도약'이라는 비전으로 민선7기의 후반기를 활짝 연 태안군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 동력 사업인 '광개토 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가세로 태안군은 태안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서울·경기권역 등 주변 지역과의 지리적 연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취임 직후부터 '광개토 대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군은 이원-대산 간 연륙교 건설 태안고속도로 추진 고남-창기도로 건설 원정사거리 교차로 개선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근흥 두아-신진도 4차선 확포장 사업-원북 간 지방도 603호 4차선 확포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도로망 구축 전략'을 수립해 '광개토 대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타당성을 마련, 가세

로 군수가 직접 발로 뛰며 중앙부처 건의 및 방문·충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으며 올 12월 최종 고시만을 앞두고 있는 이원-대산 간 연륙교 태안고속도로 근흥 두아-신진도 4차선 확포장 건설 사업 등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군은 '광개토 대사업'이 태안의 접근성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촉진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관광객 유치증대 등으로 이어져 지역 미래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군도·농어촌도로 확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우선, 55억원의 예산을 들여 군도1호 군도3호 군도4호 군도5호 등 군도 4개 노선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해 농어촌도로 총 20개 노선에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군도 14개 노선 및 농어촌도로 194개 노선에 대해 포장면 균열·침하·용기

및 포트홀 등의 정비와 함께, 훼손된 시설물 정비·도로변 제초 등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군은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제설차량 사전 확보 및 제설용 장비 사전 점검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가세로 태안군은 "연륙교·고속도로·철도 등의 기초 시설을 기본 발전 동력으로 삼아 해양치유산업 해상풍력단지 조성 인공지능 결합 해양의료시설 도심항공교통 등 다양한 미래 해양산업을 육성해 태안을 '전국 최고의 신해양산업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산청군 43억원 규모 금서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

배수·급수관로 약 10km 설치

산청군 산청읍과 금서면 일대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금서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시작한다. 12일 군은 올해 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산청읍 차탄리를 비롯해 금서면 특리와 신아리 일원에 배수관로와 급수관로 확장·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서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지방상수도 시설 증설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금서지구 상수도 사업을 통해 배수관로 9.7km와 급수관로 385m 등을 설치했다.

이번 관로 설치로 장재마을과 사평마을, 특리, 덕촌, 상호, 구아, 신아마을 등 385가구에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배수·급수관로 설치 외에도 해당지역의 노후화된 계량기를 교체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

군은 앞서 지방상수도가 미치지 못해 지하수 등 소규모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단성 저호, 금서 수철 등의 지역에도 상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현재는 1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단성정수장 증설과 삼장면 삼장지구, 오부면 오전지구 등 24곳의 상수도 확장과 인입공사를 추진 중이다. 관계자는 "앞으로

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산간 오지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소규모 급수 시설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

